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68
2010.07.14
gonggam.korea.kr



나를 찾아 떠나는 녹색여행

개통 40년 맞은 경부고속도로의 교훈

휴대전화로 다이어트하세요!

인터뷰 한승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


경기도 파주 참게탕
강원도 정선 올챙이 국수
재미있는 올챙이 국수를 찾아서!
참게가 장원급제를 뜻하는 이유는 무얼까?
경북 안동 헛제삿밥
부부금슬의 상징, 백합을 맛보며~
제사는 안 지내고 헛제삿밥만 먹은 사연은??
고소한 전어 냄새가 솔솔~, 충남 서천 전어구이
백합처럼 짝딱! 맞는 우리금슬~, 전북 부안 백합탕
지호도 죽순처럼 쑥쑥 자라길~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바로 그 전어!
다시 떠나세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겨진
맛과 이야기 속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는 맛있는 음식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세요! 숨겨진 맛과 이야기를 찾아!
Korea
Be Inspired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녹색 생태관광이 뜬다

〈eco-tourism〉



박종관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생태관광
모델사업단 컨설팅위원장

정부가 생태관광 모델 사업지 10곳을 선정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명제와 합치하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대단위 테마파크 중심 관광행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자연 속 유유자적을 일상으로 연결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는 히말라야나 알프스처럼 만년설산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열대우림의 다양한 생물종 서식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혹자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생태관광에 적당치 않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 어느 곳이나 선조들의 손때가 묻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적당한 규모의 준령들이 분수계를 이으며 백두대간을 낳았고, 계곡의 청수는 평야를 흐르며 풍요한 곡식을 선사했다. 해안 품속에 담긴 어장은 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기록물이다. 어떤 나라가 우리처럼 반만년 동안 국토 구석구석에 이렇듯 다양한 이야기를 새겨놓고 있을까.

너무 교육적이어도, 너무 재미 중심적이어도 안 된다. 물과 지형, 동식물 등 자연조건은 물론 그 결과물인 문화 산물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여부는 생태관광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에듀테인먼트적 콘텐츠가 절실히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놀이공원 같은 것이 있어서도 안 된다. 환경적으로 철저한 관리시스템 마련은 생태관광지의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쉽게 정리해 지역의 생리를 내방객들에게 제공해보자. 인위적 조경을 배격하고 약간 거칠더라도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살린 생태여행지가 돼야 할 것이다.

인스턴트식 사회구조를 벗어나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토 곳곳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원더풀’ 하면서 거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즐겁고 흐뭇한 일인가. 생태관광은 미래 선진화를 위한 최고의 액션플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천천히 그러나 치밀하게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G

Weekly
2010.07.14
No.68(통권 169호)

Contents



표 지 이 야 기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무대가 된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등을 보인 채 나란히 붙어 앉은 남녀 한 쌍의 모습이 마치 그림 속 풍경 같습니다. 혹 <토지>의 주인공 서희와 길상의 재현일까요. 무더위를 피해 녹색여행을 떠나 '나'를 찾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엔 여유와 느림의 미학이 넘치겠지요.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처럼….



일러스트 · 박용인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7.1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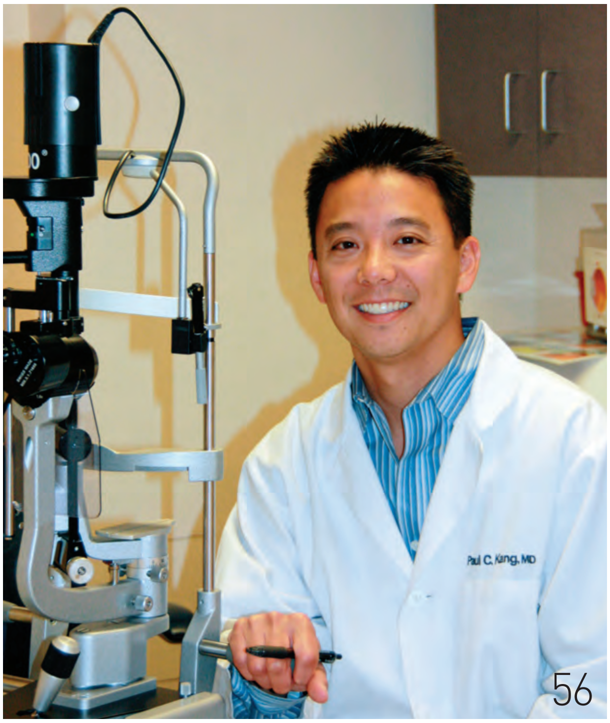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자연과 지구 생각하는 녹색여행을 떠나요

비행기나 자가용 타고 멀리 떠나야만 여행인가요?
혹시 여행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량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나요?
열차 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여행은 어떠세요?
금강소나무 숲에서 솔 향에 취하는 하룻밤이나 농촌마을에서
감자 캐고 반딧불이 보는 휴가도 있어요.
이젠 자연과 지구를 생각하는 여행,
올여름엔 진짜 녹색으로 놀아 봐요.



GONGGAM 공감 라운지 KOREA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67호(7월 7일자) 기획특집 'SAVE ENERGY, SAVE KOREA'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에너지 절약부터 실천합시다!"

"이제 기업에서도 녹색경영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구촌 환경과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친환경 녹색경영을 지원하는 노력을 더 확대해나갔으면 합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녹색경영과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_우향화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생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기코드는 뽑아두고 세수할 때 물을 받아서 씻는 것처럼 사소한 일을 실천함으로써 환경과 지구를 지킬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녹색생활은 습관이면서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소비와 번잡한 생활이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_이지연

"스타들의 녹색생활 훈훈~"

"'녹색생활 실천 연예계 스타들'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요즘 즐겨 보는 드라마 〈자이언트〉의 당돌한 여주인공 박진희 씨가 '에코 지니'라는 아이디로 트위터 활동을 한다고 해서요. 가끔 녹색 행사에 출연할 때만 친환경을 강조하는 스타들과 달리 박 씨는 생활 속에서 친환경 습관을 실천하고 있더군요. 월드컵 때 입었던 붉은 티셔츠를 모아 외국에 기부한다고 해서 저도 가족들의 티셔츠를 챙겨 보내기로 했습니다."_송미정

67호 중점기획 기사 중 '韓美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 합의'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다급했는데 때마침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한다니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우리의 자주국방과 안보태세가 완전히 갖춰져야 가능하므로 신중하고 사려 깊게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_woohh0419

67호 포토 뉴스 '그림 속에 희망을… 장애인 미술가 희망축제 한마당'을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구족화가 송진현 씨의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입으로 그림을 그리며 화가가 되고, 이번 행사에서 대상까지 타다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혼이 담긴 예술작품 대회나 전시회가 자주 개최됐으면 합니다."_coral1003


"빌려쓰는 지구 깨끗하게 돌려주고 싶어요"


"그림 속에 희망을 담습니다"

인터넷 게임 하며 법과 친해지자!

법무부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시민 등이 게임을 통해 법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플래시 법게임 공모전을 개최한다. 단순한 화면 설정 등 쉽게 제작 가능한 인터넷 동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플래시'를 이용해 만들면 된다.



공모 주제 | 생활 속의 법
참가 대상 | 전 국민 누구나
공모 분야 | 학교생활, 교통질서 준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일상생활 법 관련,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법 관련
접수 기간 | 8월 31일까지
접수 방법 | 플래시 법게임 콘텐츠를 공모전 홈페이지로 제출
시상 내용 |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상장과 상금 수여
수상자 발표 | 9월 15일 법무부 홈페이지 게재 예정

법무부 Tel **02-2110-3315**
플래시 법게임 공모전 홈페이지 lawflash.webom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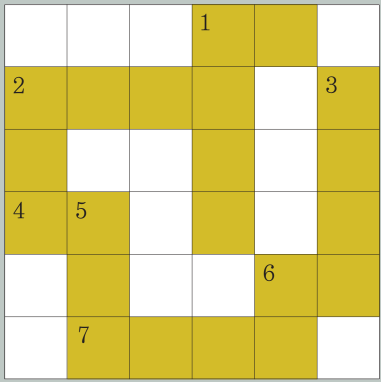
도시숲 만들기 아이디어 찾습니다!

도시숲(Urban Forest) 조성사업의 품질 향상과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 | 숲 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 (공모 지역은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참가 대상 | 산림, 조경, 건축, 디자인 등 관련 학과 대학(원)생 1인 혹은 팀 (5명 이내) 가능
접수 기간 | 7월 20일까지 sckim@jbnu.ac.kr 접수
제출 기간 | 9월 27일~10월 1일
접수 방법 | 참가 신청 접수증, 작품 설명서, 작품 패널 등 우편 및 방문 제출
접수처 | 대전 서구 복수동 292-25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운영위원회
시상 내용 | 최우수상 1개 작품, 우수상 2개 작품 등. 수상자 개별 통보 예정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Tel **042-481-4225**
산림청 forest.go.kr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7월 21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 지혜. "조상의 OO를 이어받다."
2. 올해는 경부OOOO가 개통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죠.
4. 돌로 쌓은 담.
6. 뜨거운 태양, 장마, 휴가, 더위….
7. 장씨(張氏)의 셋째 아들과 이씨(李氏)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 이름이나 신분이 특별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들.

세 로

1. 1999년 느리게 먹기, 느리게 살기 운동으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죠. 자연과 전통문화를 잘 보호하면서 따뜻한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죠. 공식 명칭은 치타슬로(Cittaslow). 우리나라는 전남 신안, 완도, 장흥, 담양과 경남 하동 등의 지역이 이것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2. 큰 돌을 몇 개 둘러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덮어 놓은 선사시대의 무덤. 전북 고창에 이 마을이 있죠.
3. 무더운 여름에 많이 생기는 구름. 모양은 솜을 쌓아 놓은 것처럼 뭉실뭉실해요.
5. 메줏가루에 쌀가루, 고춧가루, 생강, 소금 따위를 넣고 익힌 된장. 보통 청국장이라고 하죠.
6. 주로 성명 아래 붙여 쓰는데,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자를 높여 이르는 말.

〈Weekly 공감〉 66호(6월 30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천리안 3 골프 5 런던 6 우주 9 어머니
세로 1 천재일우 2 안골 4 프런티어 7 주근깨 8 끼니

〈Weekly 공감〉 66호 '공감 퍼즐' 당첨자
곽은미 · 광주 광산구 비아동
손혜진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1동
유재문 · 충남 아산시 실옥동
제서현 · 서울 노원구 상계동
최종면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이주여성들 공공기관 편히 이용하게"

강성연 우체국예금보험 공익사업 홍보대사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속도로 늘면서 다문화가정도 이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됐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보니 2009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1백17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16만여 명으로 2008년 14만여 명보다 15.7퍼센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엔미래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2018년에는 순수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 김영민

저에게 우체국예금보험 공익사업 홍보대사를 맡긴 우정사업본부만 하더라도 이주여성들이 공공기관을 편안하게 이용하고 육아 및 생활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주여성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가정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남편, 아내, 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져 가정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신국가에 따라 차별을 느끼는 이유는 다르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은 고학력자가 많아서 한국인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중국 동포는 똑같은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것에 불만을 갖는다고 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우리는 때로 소통의 부재를 느끼곤 합니다. 하물며 말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문화를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다른 문화도 존중하고 보듬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할리우드의 거장 클린트 이스트우드. 여든이 넘은 나이에 아무런 기교 없이 오로지 감동적인 이야기로 위대한 감독의 반열에 오른 그는 〈밀리언달러 베이비〉 〈그랜 토리노〉를 잇는 이스트우드 소통 3부작의 완결편 〈인빅터스(Invictus)〉를 내놓으면서 "자신이 속해본 적이 없는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격(國格)을 높여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격을 높여 '더 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아우르는 사회통합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품격 있는 선진 대한민국은 바로 '나'부터 실천할 때 이뤄낼 수 있습니다.

글 · 강성연(탤런트)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홍경석 대전 서구 둔산동

1. 평소 독서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책을 구입해 정독하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책을 좋아하다 보니 〈이달의 추천도서〉를 항상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소개된 책들도 좋았습니다. 서점에 들러 골라 보는 쏠쏠한 재미를 유발하는 모티프였습니다.
2. '녹색생활(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기사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제 습관 중 하나는, 얼추 마니아격으로 즐기는 음료가 커피인데 마실 때는 반드시 개인 컵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만날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우리가 통상 2분 동안 샤워할 때 쓰는 물이면 아프리카에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쓰는 물의 양과 같다는 기사 내용을 보니 지구사랑의 시발점인 개인의 녹색생활은 정말이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일손이 달려 노인들의 고생이 막심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정보를 실어주세요.

우정렬 부산 중구 보수동

1. '국정 최우선 과제 일자리 창출 전력'을 읽고 정부와 기업, 대학당국이 합심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경제도 호전되고 있다고 하니 점차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녹색이 미래다'를 읽고 에너지를 아끼고 친환경 제품을 쓰는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한다면 엄청난 녹색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니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져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 전에 국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3. 이제 곧 초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의견을 구해 소개해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7월 14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녹색여행으로 여름 나기'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힘내세요!
좋은 일이 생길거예요

2010년 7월 5일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일자리 중심의 정책으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활력 있는 내일을 위해
대한민국에 '좋은 일' 을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꿈이 담긴 일자리 만들기,
고용노동부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일이 대한민국의 내일,
이제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내일을 펼치겠습니다

JobYoung
www.jobyoung.work.go.kr

일자리 위주로, 국민의 눈으로, 현장 중심으로 일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G20 SEOUL SUMMIT 2010

7월 8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얼굴인 심벌과 각종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가 공개됐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청사초롱과 동해의 태양을 형상화한 이 심벌과 홈페이지를 활용해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와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지구촌 밝은 미래 비출 '청사초롱'

G20 서울 심벌 공개… 서울 정상회의 정신 상징

"오는 11월 11~12일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온 국민이 손님을 맞을 채비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좋은 어젠다로 상을 차리고, 국민은 상대를 배려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주인의식으로 이번 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의 인사말은 자못 비장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7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벌과 홈페이지를 전격 공개했다. 동해의 떠오르는 태양과 우리 전통의 등불인 청사초롱을 형상화한 이 심벌은 각국 정상들을 환영하고,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회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최근 심벌 및 슬로건 국민 공모전을 통해 최고의 영예를 안은 장대영(23) 씨의 작품 '서울의 등불'을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심벌을 완성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은 '국민과 함께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산경상대학에서 광고디자인을 전공하는 장 씨는 "서울 정상회의가 세계경제를 밝은 미래로 이끄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이미지 중 하나인 청사초롱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어둠을 밝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청사초롱에는 희망과 배려, 환영의 뜻이 깃들어 있다. 청사초롱 안에 20개 빛살로 표현된 태양은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주요 20개국의 협력을



조영철 기자

사공일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정상회의 심벌을 공개하며 심벌 공모전 수상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 G20 심벌은 동해의 떠오르는 태양과 우리 전통의 등불인 청사초롱을 형상화했다. 이 심벌은 서울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들을 환영하고,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회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해 세계경제의 힘찬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음양이 잘 어우러진 청사초롱 심벌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조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서울 정상회의의 정신을 상징한다. 아울러 어두운 곳을 밝히는 청사초롱처럼 비(非)G20 국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심벌은 기본적으로 청색과 홍색, 흑색 계열만 사용해 깔끔하게 제작됐다. 서체는 미리어드(Myriad)체를 사용해 모던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살렸다.

‘G20 어린이 광장’…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공

심벌과 함께 공개된 서울 정상회의 홈페이지(www.seoulsummit.kr)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확대 개편됐다. 먼저 국문 홈페이지에서는 서울 정상회의의 의의와 어젠다 등 모든 관련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함께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는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연동해 국민들이 정상회의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코너다.

또 다른 코너인 ‘G20 어린이 광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좀 더 쉽게 정상회의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정상회의에 대한 영문 정보뿐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의 역사, 문화, 관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Experience Korea’ 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해외 인터넷 환경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브라우저의 종류와 관계없이 세계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게 했다.

사공일 준비위원장은 “청사초롱 심벌은 국민과의 소통의 결과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심벌 발표를 시작으로 공식 홈페이지와 뉴미디어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G

글 · 김지영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 **www.seoulsummit.kr**

“젊은이여! 세상에 G20를 소리쳐라!”

G20 영 앰배서더 발대식… 20개 팀 60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7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G20 영 앰배서더(Young Ambassadors)’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영 앰배서더가 식장에 한꺼번에 모여 ‘젊은이여! 세상에 G20를 소리쳐라!’는 슬로건을 재현하는 플래시 몹(Flash Mob) 형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G20 영 앰배서더는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나라들을 대표하는 대학생 특사. 지난 6월 서류전형과 7월 6일 면접을 거쳐 총 20개 팀, 60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정상회의의 개최 의의와 중요성, 세계 리더 국가의 일원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선발됐다.

이에 따라 G20 영 앰배서더는 앞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세계인과 직접 소통하며 G20를 알리는 일도 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객원교수와 해외 정부 관광청장 등 국내외 홍보 및 의제 관련 전문가 6명이 자문위원으로 지원사격에 나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서 교수는 “한국을 홍보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의 무관심”이라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세계를 이끄는 리더 국가로 인식시켜줄 정상회의 홍보에 젊은 세대인 G20 영 앰배서더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현재 정상회의 홍보 블로그를 개설해 한국을 홍보하면서 개최 시기에 맞춰 발표할 ‘꿈’ 프로젝트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G20 영 앰배서더 공모에 참여한 터키의 폴라리스 팀이 7월 6일 면접을 앞두고 즐겁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 해결,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한승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초대 이사회 의장

인류의 당면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우리나라 주도로 지난 6월 창설됐다. 유엔사무총장 기후변화특사 등을 역임한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초대 GGGI 이사회 의장을 맡아 서울에서 출범한 국제환경기구를 이끌게 됐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세계에 확산시키키기 위한 ‘글로벌 싱크탱크(Think-tank)’가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 서울에서 공식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한승수 초대 이사회 의장은 GGGI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선진국을 배우면서 ‘양적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양적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온실가스 문제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가 지난 1만 년 간 발생한 온실가스의 4분의 3에 달할 정도로 화석연료로 인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한 의장은 “우리나라는 이제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면서 질적 성장을 추구해 다른 개도국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GGGI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무총장 기후변화특사(2007~2008년)로 활동한 한 의장은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현재 유엔사무총장 물과 위생 자문위원회 위원과 유엔 물과 재해 고위급전문가회의 의장직도 수행하며 국제무대에서 기후와 환경에 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등 3개 유엔기관 공동 주최로
2008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연설 중인 한승수 GGGI 초대 이사회 의장.

GGGI 창설의 가장 큰 의미를 꼽는다면.

먼저 우리나라가 직접 의제(Agenda)를 제기하고 주도하면서 본부를 한국에 두고 활동하는 국제기구로서는 GGGI가 처음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볼 때 그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이 주로 전문가 주도로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온 반면 GGGI는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GGGI의 출범은 이명박 대통령의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연설이 계기가 됐는데, 이 밖에 다른 국제적 공감대도 있었는지요.

우리나라가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한 이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지난해 6월 각료이사회에서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했고, 올해 4월 유엔환경계획(UNEP)이 한국의 녹색성장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총회에서 GGGI 설립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미 많은 나라에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금도 각국 정부, 유엔,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참여와 협력 방안을 문의하고 있으며, GGGI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GGGI 조직과 구성원은 어떻게 이뤄져 있습니까.

GGGI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Board of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이 주로 전문가 주도로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온 반면 GGGI는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Directors)에서 이뤄지는데, 현재 6명의 이사(비상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이사회 의장을, 세계적인 기후변화 전문가인 니콜러스 스턴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와 토머스 헬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15인 내외의 글로벌 인사로 이사회 구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현재 상근 임직원 채용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구소장 격인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 아래 연구개발팀, 글로벌전략팀, 경영지원팀, 국제협력팀의 4개 팀이 설치됩니다. 또 이사회와는 별도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가 있으며, 자문위원들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녹색성장의 이론과 정책에 대한 조언 등 GGGI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하게 됩니다.

GGGI의 향후 활동 일정과 계획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우선 녹색성장 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녹색성장 모델을 개도국에 전파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녹색성장 보고서를 정기 발간하고, 글로벌 녹색성장 컨퍼런스를 정기 개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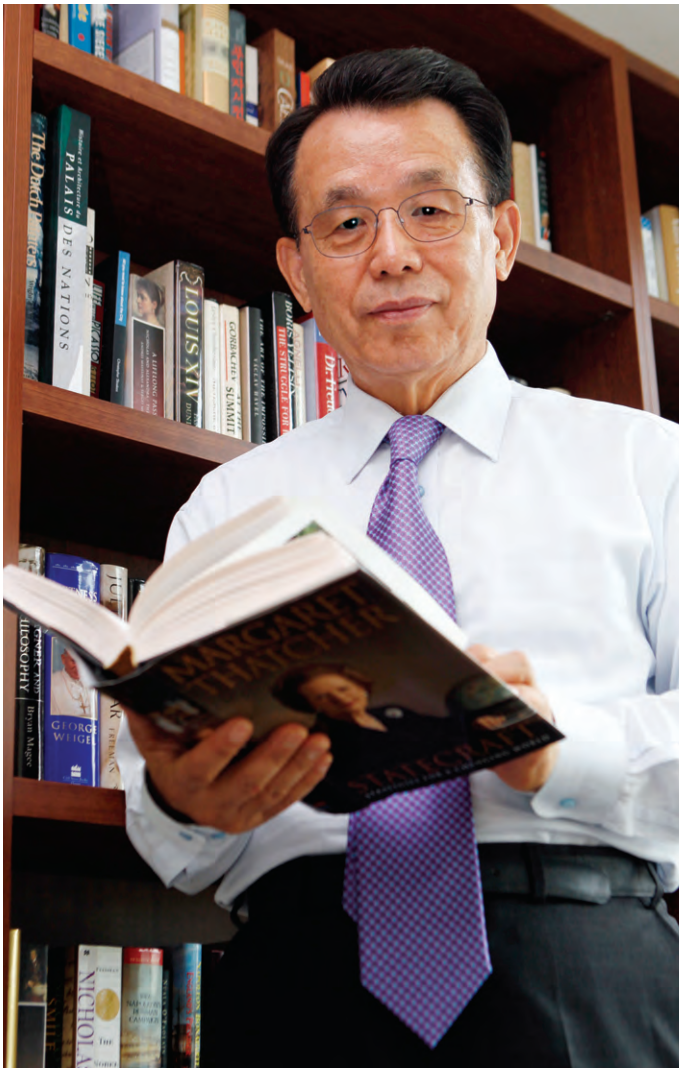
이 밖에 유엔이 인정하는 수준의 국제기구로서 GGGI 입지 강화를 위해 유엔, OECD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확대하고 오는 9월 유엔에서 열리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 회의, 11월의 서울 G20 정상회의, 12월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계기로 GGGI의 활동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녹색성장의 한 축인 4대강살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산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종합관리도 미흡했습니다. 흔히 '치산치수(治山治水)'를 말하는데, 산은 이미 녹화됐지만 강은 산업화 과정에서 퇴적물이 쌓이고 오염돼 복원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올해가 6·25전쟁 발발 60주년이어서 많은 외국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다녀갔는데, 그분들이 제일 놀란 건 높은 빌딩이 아니라 벌거벗은 산들이 초록으로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북한강가에서 자라 지금의 강이 누구보다 안타깝습니다. 강을 살리자는 순수한 취지의 사업이 정치문제화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고, 유독 '토목공사' 부분만 부각됐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깨끗한 물을 확보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동시에 치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순수하게 강을 복원하자는 초심(初心)에 온 국민의 의지가 모였으면 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조영철 기자

한승수 GGGI 초대 이사회 의장은 기후변화특사 등 국제무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GGGI를 세계적인 환경기구로 키워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개방과 소통의 대동맥

개통 40년 … 한국 현대사를 바꾼 기념비

'무모한 모험'이란 편견을 뛰어넘은 도전이자 우리나라 산업화의 시발점이 된 '한국경제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7월 7일로 개통 40주년을 맞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1천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개통 40주년 기념 '도로의 날' 행사가 열려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했다.

전장 4백28킬로미터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1968년 2월부터 1970년 7월 7일까지 2년 5개월간 1백65만 대의 장비와 연인원 8백93만명이 동원된 유례없는 국책사업이었다.

당시 공사 현장은 열악했다. 공사 참여 16개 시공업체 중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있는 곳은 현대건설뿐이었으며, 공사 장비들 대부분이 노후장비였다. 믿은 것은 오직 사람뿐, 20~30대의 젊은 노동 인력이 투입됐다.

반대 여론도 드셌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백42달러에 불과했던 1967년 당시 국가 예산의 23.6퍼센트인 4백29억7천3백만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과 부산 간 지역에 대한 중복투자와 지역편중, 시기상조란 주장과 더불어 졸속공사, 환경파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시간 단축이란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원활한 물류 수송에 힘입어 경공업 위주에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돼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또 인근 도시까지 더불어 발전하며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었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가까워지며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던 날, 젊은 도로 기술자들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77인의 희생으로 이뤄낸 경부고속도로, 이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대역사(大役事)를 이뤄내면 국가는 물론 국민 개개인의 생활까지 바뀐다는 국책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 대혁신이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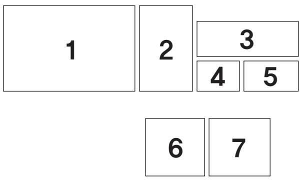


동아DB





연합



1 개통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모습.
2 현재의 경부고속도로.
3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4 건설 중인 경부고속도로를 지켜보는 모자 쓴 일행의 뒷모습에서 궁금증이 묻어난다.
5 7월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경부고속도로 개통 40주년 기념 행사.
6 초기 경부고속도로의 순찰차.
7 경부고속도로 요금소의 개통 무렵.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는 대학생 등 국방부 천안함 관련 정책설명회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하나하나 살피며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젊은 블로거와 트위터 이용자에게 천안함 공개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난 지 1백 일이 지났지만 천안함을 둘러싼 논쟁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7월부터 인터넷 블로거, 스마트폰 트위터,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천안함 선체의 절단면을 공개하는 설명회를 갖고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之不如一見)'. 7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인터넷 블로거와 스마트폰 트위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층(20, 30대) 대상 천안함 관련 정책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은 천안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대학생 최종익(24) 씨는 "인터넷은 물론 친구들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못 미더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런 말들이 다 허황된 것임을 반드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유균혜 정책홍보과장의 사회로 민군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의 브리핑이 진행되자 일부 언론과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과 다르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학생 정예은(22) 씨는 "의혹이라고 말한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했고, 이성진(22) 씨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와서 보니 내 판단에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와 동일한 5미터 안팎의 어뢰 도면이 펼쳐지자 참석자들은 "이렇게 큰 어뢰가 조그만 잠수정에서 발사됐다니"라며 놀라워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셨던 어뢰 추진체는 어뢰의 가장 뒷부분"이라고 덧붙였다.

80미터가 넘는 날렵한 선미 서해 누볐을 위용 떠올라

국방부의 설명회를 마치고 일행은 천안함이 보관된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로 이동했다. 2함대사령부의 가장 자리에 보관된 천안함은 날렵한 선미에 80미터가 넘는 실제 모습이 서해를 누볐을 위용을 떠올리게 했다. 이 선체가 천안함임을 알리는 '772'란 숫자도 또렷했다.

그러나 천안함의 절단면은 사람이 두 동강 난 것처럼 처참했다. 전기선, 통신선 등 배를 움직였을 각종 배선과 내부 구조물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거나 절단됐다. 두께 1센티미터가 넘는 강철판이 종이조각처럼 구겨진 모습, 4센티미터가 넘는 강철판이 플라스틱처럼 쪼개진 모습에 참가자들은 "어뢰의 위력이 이 정도냐"며 혀를 내둘렀다.

합동조사단 서문원 박사는 "버블젯 어뢰는 거대한 물 원이 직접 충격을 주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외판이 급격히 꺾이거나, 솥뚜껑처럼 쪼개진다"며 "선체의 바닥이 모두 깨끗한 것은 천안함이 버블젯 어뢰로 침몰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잘려 나간 유실면은 더 처참했다. 버블젯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은 중앙부 바닥은 4센티미터가 넘는 강철판이 휴지조각처럼 구겨졌고,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수색작업으로 회수된 천안함의 잡동사니를 보니 마치 천안함 용사가 눈앞에 있는 듯했다. 총기를 손질하던 꽂을대와 방탄 헬멧, 장교용 권총집, '천안함'이라고 쓰인 장병의 머그컵은 일행의 심금을 울렸다.

2함대사령부 서강흠 대령은 '천안함 컵'을 가리키며 "대원의 일체감을 높이고 장병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함정 자체 머그컵을 쓴다"고 설명했다.

천안함의 참상을 목격한 젊은이들의 생각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설명회에 두 번째 참석했다는 백상아(24) 씨는 "솔직히 지난번에는 잘 몰라서 지나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하나하나 살피며 진실을 확인했다"며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본 사실을 반드시 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함 공격행위 비난하는 의장성명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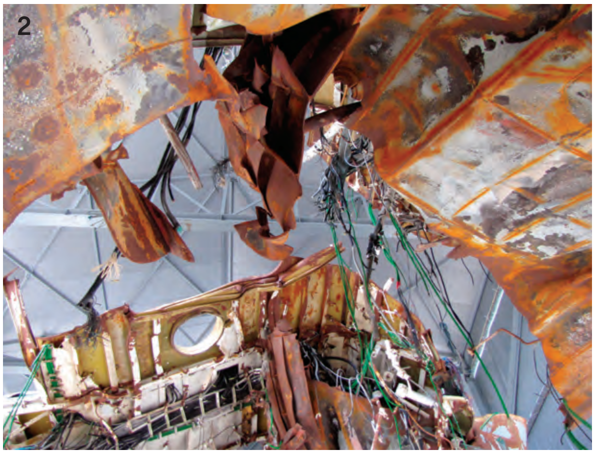
한편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은 7월 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천안함을 침몰시킨 공격행위를 비난하는 의장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은 6월 4일 안보리에 공식 회부됐다.

안보리는 이날 'P5(상임이사국)+2(한국, 일본)' 간에 잠정 합의된 이 문건을 회람한 뒤 천안함이 공격(attack)받았다는 점을 적시하고, 이 같은 행위를 비난(condemn)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성명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했고,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명시적으로 북한을 공격 주체로 표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G

글과 사진 · 공감 코리아(gonggam.korea.kr) 제공


1


2



3

1 천안함 함체 바닥의 소나(수중음파탐지기). 일각에서는 암초설을 제기했으나 천안함이 암초에 충돌했다면 함체 바닥보다 낮은 위치인 소나가 멀쩡할 리 없다.
2 두 동강 난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 사이 절단면.
3 천안함 승조원들이 사용하던 머그컵.
4 바다에서 건져올린 방탄 헬멧, 권총집 등.


4

강 따라 길 따라 행복이 흐른다

4대강 수변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9월 확정

4대강살리기 사업은 크게 보(洑) 설치, 준설, 수변공간 조성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동식물 서식환경을 고려해 오는 9월 말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로 했다. 4대강 주변 총연장 9백29킬로미터 구간에 수변공간이 어떻게 조성될지 기본설계를 알아본다.

금강

낙화암·부소산성 등 상징적 경관 조성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를 통과하는 금강 6공구 부근에는 백제 유적이 밀집해 있다. 따라서 부여군에는 낙화암, 부소산성 등 주변의 역사적 이미지와 연계되는 상징적인 경관이 조성된다. 6공구 끝 지점인 청양군, 공주시까지는 높아지는 구릉의 자연 이미지와 조화되는 친환경적 자연복원 공간으로 조성된다.

생태계는 기존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존해 수변에는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흰빰검둥오리가 살고, 수중에는 논병아리, 피라미, 모래무지, 하중도에는 원앙과 검은딱새 등이 서식하는 환경을 만든다. 주변 산림엔 소나무, 제방에는 아까시나무를 심고, 둔치에는 버드나무, 갈풀, 물억새 등을 심어 하천 정화와 함께 금강만의 개성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금강유역 전 구간에는 습지가 조성된다. 습지는 깊이와 위치에 따라 추수식물대, 부엽식물대, 침수식물대, 부유식물대로 나눠 조성한다. 이들 식물대는 수질정화, 식물플랑크톤 억제, 질소 및 인 흡수 등 수질개선을 돕는다. 또 큰 웅덩이, 모래, 자갈밭 등이 자연 형성되도록 유도해 멸종위기종인 미



영산강 수변에는 황포돛배 등 옛 문화의 상징이 그대로 살아 있는 '뱃길상징마당'을 만든다.

호종개, 흰수마자 등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며 친수공간인 수변광장, 수변쉼터, 조류관찰 데크 등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며 수변무대를 만들어 대백제전 같은 축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영산강

습지역사문화권역, 강변활동 연계된 중심시설 설치

영산강은 지역에 따라 친수여가권역, 생태보전핵심권역, 습지역사문화권역, 자연복원권역 등으로 구분해 조성한다.

자연복원권역은 황룡강 하류에 연계된 지역으로 생태계, 역사, 문화, 경관이 우수해 인위적 정비 없이 보전 유지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친수여가권역은 광주 도심 등 시가지와 인접한 구역으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나루터, 자전거도로 등 자연 친화적 시설로 조성된다.

영산강과 황룡강의 합류부인 생태보전핵심권역은 다양한 어류와 조류를 적극 보전하기 위해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며, 습지역사문화권역은 옛 문화유적과 이어지는 곳으로 강변 활동과 연계된 중심시설을 설치한다. 영산강 중심본류와 연계된 지역은 훼손이 심해 자연복원권역으로 지정해 생태계 회복에 힘쓴다.

또 황포돛배 등 옛 문화의 상징이 그대로 살아 있는 점을 활용해 뱃길의 역사적 상징성과 체험이 가능한 '뱃길상징마당'을 조성해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한강

여주 역사·문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 조성

한강에는 숲과 물길이 어우러지는 수변공간이 조성된다. 예를 들어 남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 4공구 여주 2지구에는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여주의 수변공간을 구성하는 테마는 '에코스트림(Echo Stream)' '네이버후드 투어리즘(Neighborhood Tourism)' '네이처 스페이스(Nature Space)' 등이다.

에코스트림은 하천 생태계와 산림 생태계를 연결해 오픈형 수로를 만들고 호안 녹화를 할 예정이다. 네이버후드 투어리즘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공간 형성을 의미하는데, 여주8경, 도예촌, 세종대왕릉, 신륵사 등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물 자원을 이용한 '에코 뮤지엄'과 같은 관광명소도 만든다.

네이처 스페이스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으로, 지형 그대로를 살려 선형 호안을 만들고 지역 고유의 경관 조성 및 나루터 복원 등으로 이뤄진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



낙동강에는 모래톱, 자갈밭, 건생초지 등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철새들의 낙원으로 만든다.

동아DB

친수문화공간에는 지역의 향토수종인 소나무, 주목, 메타세쿼이아, 왕벚나무 등을 심어 주변 경관과 일체화한 테마가로를 만들고, 완만한 경사지에는 물억새 군락을 조성해 색다른 경관을 연출한다.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테라스가든에는 부채꽃과 제비붓꽃 등이 번갈아 피게 된다.

낙동강

주변관광 요소의 네트워크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낙동강에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수변공간이 조성된다. 낙동강 18지구인 창녕·함안지구의 경우 창원 등 도시와 인접해 있는 것을 감안해 주변 관광요소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작업이 펼쳐진다. 특히 함안과 창녕은 가야 문명을 대표하는 곳으로 가야시대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자원이 남아 있다.

낙동강 지역을 계성지구, 함안 1·2지구, 복합문화지구, 길곡지구 등으로 나누어 지구마다 특화된 테마로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계성지구는 인위적 요소를 배제하고 조류서식습지, 조류먹이터, 횃대 등을 설치해 생태를 복원하고, 복합문화지구는 다기능 보를 중심으로 수변공간을 연계해 어도(魚道) 관찰, 갤러리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낙동강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 2급인 큰고니의 도래지로, 해마다 많은 철새들이 찾아온다. 이처럼 조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조류 서식처 및 모래톱, 자갈밭, 건생초지 등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철새들의 낙원으로 만든다. 조류 외에도 삵, 참개구리, 강준치 등 토종생물의 서식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G

글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제공

www.129.go.kr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

가슴으로 전하는 희망의 목소리



도움이 필요하세요? 희망의 전화 ☎129를 누르세요.

민생안정지원에 관한 상담

생활이 어렵고 생계가 막막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지원, 자영업자생업지원, 실직자지원, 저소득층생계지원, 교육·주거지원 등

소득보장에 관한 상담

소득이 적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자활사업,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상담

장애가 있고, 생활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보육정책, 사회서비스, 인구정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제도 등

건강생활에 관한 상담

몸이 많이 아프고 병원비가 없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보건의료, 건강보험, 한의약정책, 건강정책, 질병정책, 노인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긴급지원에 관한 상담

이웃에 학대받는 아동, 노인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지원(야간/휴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정신건강, 자살, 알코올, 응급의료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올여름 녹색으로 놀자

비행기나 자가용 타고 멀리 떠나야만 여행인가요? 혹시 여행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량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나요? 열차 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여행은 어떠세요? 금강소나무 숲에서 솔 향에 취하는 하룻밤이나 농촌마을에서 감자 캐고 반딧불이도 보는 휴가도 있어요. 이젠 자연과 지구를 생각하는 여행, 올여름엔 진짜 녹색으로 놀아 봐요.



일러스트 · 박용인

녹색여행이 '진짜 여행'

자연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여정

녹색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연을 찾는 게 아니라 여행하는 동안 환경파괴나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쓰레기를 모아 가져오는 작은 정성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안온함, 내 손으로 지구를 지킨다는 뿌듯함과 미래세대에 대한 떳떳함을 얻을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족여행을 할 만큼 여행 마니아인 강여진(45 · 서울 도봉구 창동) 씨의 세 가지 여행 콘셉트는 걷기, 자전거, 캠핑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곳은 차를 몰고 가지만 현지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닌다. 또 펜션이나 호텔에서 숙박하지 않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

지난 5월 전남 신안군 증도에 갔을 때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강 씨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는데, 슬로시티에 와서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증도가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캠핑을 하는 이유도 자연과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다. 강 씨는 "캠핑을 하려면 숙박과 취사에 필요한 짐을 챙겨야 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지만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불편"이라고 말했다.

"증도에서는 우전해수욕장에 텐트를 쳤어요. 해수욕장 뒤에 있는 소나무 숲을 걸을 때 얼마나 고즈넉하고 상쾌한지, 해지는 저녁 바닷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총총한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죠."

불환삼공지락(不換三公之樂)이란 옛말이 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벼슬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다. 항상 바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도시인들에게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은 불환삼공지락을 느낄 수

녹색여행은 여행하는 동안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녹색여행은 중요하다.



동아DB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있는 귀한 기회다.

먹고사는 문제에 매달렸던 시절을 지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행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유명한 곳을 찾아다니며 많이 보고 많이 쓰는 여행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 지구온난화와 전 세계적 환경재해에 대한 위기의식도 녹색여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녹색여행은 유흥과 위락 중심 또는 대규모 관람형 여행에서 벗어나 자연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농촌체험과 자연관찰 등을 즐기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관광객이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관광으로 인한 수익을 생태계 보전에 사용하는 생태여행, 관광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려는 공정여행 등도 포함된다.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도보 여행으로

녹색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연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동안 환경파괴나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여행에는 환경을 고려한 여행지 개발, 에너지 절감형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못지않게 여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녹색여행을 하기로 했다면 비행기나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 여행이나 도보 여행을 해보자. 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2005년 여행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 13억7백만 톤 가운데 항공이 40퍼센트, 자동차가 32퍼센트를 차지했을 만큼 이동수단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또 여행지에서는 전기와 수돗물을 내 집에서처럼 아끼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낚시나 산림훼손 등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동 하지 않기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녹색여행을 하자면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편리한 자가용을 두고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쓰레기를 모아 가져오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안온함, 내 손으로 지구를 지킨다는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

서울대 산림과학부 김성일 교수는 "녹색여행은 많이 돌아다니며 많이 보는 여행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오래 머무는 여행, 그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이해하고 보존하며 나아가 교류하는 여행"이라며 "앞으로는 모든 여행이 녹색여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세계 각국의 저탄소 녹색여행


동아DB

트레킹을 하고 나오는 배낭여행자들의 손에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그린투어'

유럽 최고의 청정도시로 알려진 덴마크 코펜하겐시는 관광홈페이지(www.visitcopenhagen.com)에 관광객이 그린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숙박지로는 '탄소 중립지대'를 지향하는 '그린 키 호텔'이 있다. 호텔 내 전력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빗물을 모아 정원을 가꾸는 데 활용하며, 각종 에너지 절약장치를 설치했다.

그린투어의 이동수단으로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인 '시티 바이크'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코펜하겐 호텔의 90퍼센트가 싼값에 자전거를 빌려준다. 코펜하겐 외곽에 자리한 기술박물관에서는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시장 내부의 불을 밝히고,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체험 코스도 있다.

일본 홋카이도 시닉 바이웨이 '탄소 상쇄 투어'

'경관'과 '길'을 합성한 용어인 시닉 바이웨이(Scenic Byway)는 자연경관을 도로로 연결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 7월에는 여행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기 위해 방문지역에 나무를 심는 '탄소 상쇄 투어'를 실시했다. 삿포로에서 루모이에 이르는 홋카이도 서쪽 해안지역을 버스로 관광한 20명의 참가자들이 50여 그루의 전나무와 낙엽송을 심었다.

이후에도 탄소 상쇄 투어는 계속돼 참가비 중 5백 엔씩 부담하거나 렌터카 회사와 연계해 렌터카 이용료 중 5백 엔을 '시닉 숲'에 기부해 나무를 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아트모스페어' 프로그램

독일의 여행사업자협회와 환경단체, 환경·자연보호·핵안전 연방기구가 협력해 탄소 상쇄 프로그램인 '아트모스페어'를 운영하고 있다.

비행기 승객들은 여행사 또는 인터넷에서 아트모스페어 인증서를 구입하거나 아트모스페어 웹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승객들이 지불한 탄소 발생량에 대한 할증료는 개발도상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기반 구축 및 기후보호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된다. 이 프로그램은 유엔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돼 온두라스에서 소형 수력전기발전소를 설치하고 인도에서 곡물쓰레기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 등을 지원했다.

자료 제공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느림과 비움의 미학 '슬로시티'

꾸밈없는 자연과 훼손되지 않은 전통 속에서 여유로움을 즐기는 '슬로시티(Slow City)' 여행이 어느덧 여행의 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승인한 전남 신안 증도, 완도 청산, 장흥 유치, 담양 창평과 경남 하동 악양, 충남 예산 대흥 등 6곳은 빼어난 자연풍광과 전통의 맛과 멋으로 진정한 휴식을 추구하는 이들이 즐겨찾는 곳이 되고 있다.



햇살 아래 건강하게 자라나는 장흥군 유치의 표고버섯.
이 지역은 꾸밈없는 시골 외갓집 같은 슬로시티다.

대나무 향이 흩날리는 전남 담양군 창평면의 조용한 삼지내 전통마을이 갑자기 이국(異國)의 바람으로 떠들썩했다. 지난 6월 28일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등 14개국의 슬로시티 전문가 1백여 명이 한옥이 그대로 보전된 이곳을 찾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한국슬로시티본부·국제슬로시티연맹 주최로 6월 25~29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2010 국제 슬로시티 시장 한국총회' 참석차 삼지내 전통마을을 찾은 이들은 한과와 전통엿 등 우리 고유 음식에 감탄하고 한옥의 고운 선, 한복의 자연스러운 색감에 취했다.

삼지내 전통마을은 국제슬로시티연맹 본부가 인정한 한국 슬로시티 6곳 중 한 곳인 전남 담양군 창평면의 한옥마을이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슬로시티(Slow City) 운동'을 토대로 1999년 이탈리아에서 창설됐다. 치타슬로(Cittaslow)라고도 하는 슬로시티 운동은 '국민행복 운동의 일종'으로 '인간사회의 진정한 발전과 오래갈 미래를 위해 자연과 전통문화를 잘 보호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꾀해 진짜 사람이 사는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 신안 증도·완도 청산 등 6개 지역 슬로시티 지정

국제 슬로시티는 현재 20개국 1백32개 도시로 확산됐으며,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전남 신안군 증도, 완도군 청산, 장흥군 유치, 담양군 창평과 경남 하동군 악양, 충남 예산군 대흥 등 총 6개 지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돼 있다.

삼지내 전통마을이 있는 담양군 창평은 전통과 생태, 전통 먹을거리라는 슬로시티 지정의 세 가지 요건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슬로시티다. 고택과 문화재가 많고 메타세쿼이아길과 대나무 숲, 그리고 한과, 떡갈비 등 전통 먹을거리가 보전된 고장이다.

신안군 증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갯벌염전이 있는 곳이다. 사라져가는 천일염의 보고인 갯벌염전은 증도가 슬로시티



동아DB

14개국에서 온 슬로시티 전문가들이
전남 담양군 삼지내 전통마을에서
한국문화의 상징인 한옥을 둘러보고 있다.

로 지정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소금창고를 개조해 만든 국내 유일의 소금박물관이 있으며 갯벌과 염전, 습지가 공존해 때 묻지 않은 자연의 생명력을 대표한다.

완도군 청산은 푸른 바다와 어우러지는 구불구불한 돌담길이 이어지는 마을 풍경, 그 풍경사이로 보이는 노인들의 따스한 미소, 소박한 사투리가 잃어버린 고향의 이미지를 간직한 어촌마을이다. 초분(草墳)의 풍습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청산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슬로푸드가 생활화된 슬로시티의 전형이다.

하동군 악양, 단아한 모습의 마을로 품격 갖춰

장흥군 유치는 42개 마을이 유기농법과 순환농법을 고수하며 건강한 농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고장이다. 이곳은 표고버섯도 노지 재배를 하는 슬로푸드 생산지이며 가축 냄새와 인분 냄새가 풍기는, 마치 시골 외갓집같이 수수하고 꾸밈없는 슬로시티다.

하동군 악양은 다향(茶香), 문향(文香), 도향(都香)의 세 가지 향이 있는 고장이다. 야생차밭과 소설 〈토지〉의 본고장이기도 한, 비닐하우스가 없는 단아한 마을 모습은 슬로시티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다.

가장 최근에 슬로시티로 지정된 예산군 대흥은 '의좋은 형제마을'이란 고려시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커다란 예당저수지를 품고 있는 곳이다. 민물고기 요리와 예산 사과, 광시면 한우 등 먹을거리가 풍부한 고장이다.

한국슬로시티본부 손대현 본부장은 "이번 국제 슬로시티 시장 한국총회에 참석한 슬로시티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의 슬로시티들이 예상 외로 놀랍도록 아름답고 전통적이라는 평가를 들었다"며 "적어도 각 도마다 한두 곳씩 슬로시티를 지정해 전통과 생태, 슬로푸드가 보존된 한국 슬로시티를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한국슬로시티본부 Tel **02-2052-1751 cittaslow.kr**

"선비문화체험으로 조상의 지혜 배워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오."

지난 6월 30일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종택에서 기업은행 신임 지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연회에서 퇴계 이황의 16대 종손 이근필(79)씨는 이렇게 당부했다. 퇴계 철학의 핵심인 '경(敬 · 삼가고 조심함) 철학'을 들어 한 말이다.

이날 강연은 최근 일반인은 물론 기업 임원들 사이에 유행하는 '선비문화체험' 행사의 하나다.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면서 선비문화와 그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휴가나 여행은 현재적 개념만은 아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현대인들의 '일주일 뚝딱' 여행이 아니라 두어 달씩 명산(名山) 순례를 하기도 했고, '사가독서(賜暇讀書 ·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학문에 전념하게 한 조선시대 제도)'라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독서를 통한 휴식을 즐겼다.

〈선비문화체험 정보〉

한국서원연합회 Tel **02-765-9598 sewonstay.com**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Tel **054-843-1034 dosansowon.com**
경북미래문화재단 Tel **054-841-2434 gbculture.org**
경북 안동시 Tel **054-856-3013 andong.go.kr**

완도군 청산에서 지금도 볼 수 있는 초분(草墳).
풍장을 지내기 전의 가묘(假墓)다.




1

자연·문화가 소통하는 '三村' 아십니까

국내 최고의 여름휴가지 농산어촌 마을 5곳

우리의 농산어촌은 자연과 문화와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는 훌륭한 '길라잡이'이자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보물'이다. 그곳에서 얻는 감동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올여름 휴가는 정 많은 '삼촌(三村)'과 함께 보내보도록 하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경기도 등이 최고의 여름 휴가지로 선정한 '명품' 농산어촌 마을 5곳을 소개한다.

보릿고개 먹을거리로 '웰빙'합시다

양평 보릿고개마을

"옛날 배고픔을 달래가며 오로지 살기 위해 먹었던 초라한 음식들이 이젠 웰빙 음식으로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경기 양평군 '보릿고개마을' 위원장인 이상용 씨의 말이다. 용문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굶주리고 가난했던 1960년대 보릿고개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색 테마마을이다.

'먹고 돌아서면 배가 꺼지는' 대표음식인 꽁보리밥에서 호박밥, 쑥개떡, 보리개떡 등을 직접 만들고 먹어볼 수 있다. 배고픔에 잠을 청하지 못한 경험을 해본 60대들이 아련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마을이다. 아이와 학생들에겐 음식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공간이기도 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G20 정상회의 이후 우리 농어촌의 아

보릿고개마을에서 양봉체험을 하는 학생 관광객들.







1 올여름은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는 훌륭한 '삼촌(三村)'과 함께 보내는 건 어떨까.
2 '蛤九'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합구생태마을은 조개의 천국이다. 특히 '조개의 왕'이라 불리는 백합 캐기는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Rural-20' 프로젝트에서 농어촌 체험마을 2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보릿고개마을에선 각종 나물을 캐고 고구마, 옥수수 따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보릿고개마을의 할머니 사무장이 직접 두부 만드는 법도 가르쳐준다.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과수농장에서 직접 복숭아를 따고 시식도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즐기는 중간 중간에 인심 후한 마을 사무장들이 내놓는 더덕막걸리가 애주가들을 사로잡는다. 트랙터를 개조해 만든 열차로 마을 주변을 산책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양평 보릿고개마을 Tel **010-4400-7786 borigoge.invil.org**

산과 바다 체험을 한곳에서

부안 합구생태마을

역시 'Rural-20'에 선정된 전북 부안군 합구생태마을은 1991년 정부가 새만금간척지 기공식을 연 마을로 유명하다. 마을이 간척지로 매립됐지만 일부가 바다로 남아 있는 데다 마을 옆과 뒤쪽으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 경관 자체만으로도 감동을 준다. 산과 바다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듀얼' 생태마을이라 할 수 있다.

마을 측은 이러한 환경적인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관광객들이 농어촌 사람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모래갯벌에서 '조개의 왕'이라 불리는 백합을 비롯해 칠게, 맛조개, 바지락, 골뱅이, 쏙 등을 직접 잡는 체험은 압권이다.

이곳에는 조개의 종류와 수가 유난히 많다. 이 때문에 '합구'라는 마을 이름에 더욱 관심이 간다. 이름 의미만으로도 이곳이 조개 천국임을 단번에 짐작할 수 있다. 한자로 '蛤九', 조개가 아홉 개라는 의미다.

마을 산촌문화회관 옆 옛길을 따라가면 아담한 방죽(웅덩이)을 만날 수 있다. 방죽은 부안댐이 완공되기 전 합구마을 사람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지금은 친환경적인 인공 생물서식공간인 '곤충 비오톱(Biotope)'으로 조성됐다. 생태환경 교육의 장으로 변모한 것이다.

또한 이번 여름 휴가철에 이곳을 찾는다면 국내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중 가장 크기가 큰 '늦반딧불이'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그 다음 비오톱 인근 물렁바위 약수터에서 물 한 잔 '원 샷' 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어떠한 이온음료보다 갈증을 깔끔하게 풀어줄 것이다.

부안 합구생태마을 Tel **010-9855-0678 esaemankum.com**



1 우포가시연꽃마을을 찾은 한 가족이 쪽배를 타고 우포늪을 지나면서 오감을 만끽하고 있다.
2 구병아름마을에서 앙증맞게 떡메를 치는 아이들.

장수(長壽)의 비밀을 찾아서

보은 구병아름마을

장수마을 하면 세계적으로 일본이 으뜸이다. 시즈오카현 후지미마을, 오키나와현 기타나카구스쿠마을 등 '단골손님' 격으로 소개되는 장수마을이 한두 곳이 아니다. 우리도 속리산 자락 명당에서 장수의 기운을 뿜어내는 곳이 있다. 충북 보은군의 구병아름마을이 그곳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가대표' 무병장수마을로 지정한 이곳에선 혹시라도 50, 60대 분들이 세상 다 살았다고 한숨짓다간 큰 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80~90세를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1백 세 이상 노인도 자주 마주친다.

주민들이 매일 접하는 12달술(달마다 빚는 가양주), 메밀국수, 메밀묵 등을 먹는 경험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장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7, 8월에 이곳을 찾는다면 오미자와 매실주의 향기가 마을에 진동할 것이다.

구병산 자락 해발 3백50미터 분지에 자리한 구병마을은 구병산에서 속리산으로 이어지는 '충북알프스'의 출발점에 있다. 2001년 당시 행정자치부 '아름마을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된 구병아름마을은 2004년에 이미 펜션 등 휴양 및 체험 시설까지 갖춰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올해도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니 구병리 이장인 임휘순 씨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여기저기 마을을 자랑하느라 목소리 톤도 높아진다.

"자연과 술을 좋아하고 건강을 챙기려는 분이라면 꼭 찾아오세요."

보은 구병아름마을 Tel **010-4802-9003 sulsul.org**





3 '논'의 고정관념이 여지없이 깨지는
평택 바람새마을의 '논 놀이터'.

웰빙을 뛰어넘어 로하스로

창녕 우포가시연꽃마을

웰빙의 다음 트렌드는 뭘까. 전문가들은 '로하스(Lohas)'라고 답한다. 건강과 환경이 결합된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이다.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웰빙보다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신념이라 할 수 있다. 낡았건 새롭건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 의식이 깊이 숨어 있다.

원시 자연늪이 그대로 간직된 최대 자연습지로 3백5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우포늪을 끼고 있는 경남 창녕군 대합면에 위치해 있으며, 국내 최대 가시연꽃 군락이 있는 '우포가시연꽃마을'은 로하스의 의미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곳이다.

환경보전 상태가 워낙 좋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난 1월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농촌마을 1백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2006년엔 대표 농촌 전통 테마마을로도 뽑혔다.

그야말로 오감(五感) 생태체험을 완벽하게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쪽배를 타고 늪을 관찰하고, 바람 소리를 따라 갈대밭도 걸어보고, 미꾸라지와 우렁이를 직접 손으로 잡아보는 생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늪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산책로도 조성됐다. 늪 가까운 구릉지에는 간이 탐조대가 설치돼 있어 철새 관찰도 가능하다.

먹을거리도 전부 자연 그대로다. 양파 소면으로 만든 국수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다. 연꽃 칼국수와 연꽃차는 세상에서 본 식사와 후식으로는 가장 '기가 막힌' 앙상블이다. 오감의 감동에 천국이 따로 없다.

창녕 우포가시연꽃마을 Tel **010-8859-4916 woopo.go2vil.org**

논이 곧 '생태 놀이터'… 논에서 축구 하고 보드도 탄다

평택 바람새마을

논을 놀이터로 만든 마을이 있다. 2008년 경기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된 평택 바람새마을이다. 이곳에선 이번 여름 '논'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진다.

지난 5월 바람새마을을 다녀간 김이철 씨가 마을 홈페이지에 올린 체험 후기다.

'울퉁불퉁 논 위에서 신기한 기계에 끌려 보드를 탄다. 정말 신기했다. 태어나서 이런 체험은 처음이다. 트랙터 바가지 안에서 얼마나 엉덩이를 흔들었던지 지금도 아파서 슬프다.'

'논 보드 타기'라는 기상천외한 체험을 하고 난 뒤 쓴 글이다. 이 마을에서 논은 오로지 벼가 자라는 곳만이 아니다. 사람과 함께 숨 쉬는 곳이다. 올해 여름엔 논에서 축구를 하는 퍼포먼스 행사도 준비돼 있다.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2010 남아공월드컵의 열기를 논에서 이어가자. 녹색의 논에서 16강 세리머니를 준비하시길. G

글 · 유재영 기자

평택 바람새마을 Tel **031-663-5453 balamsae.com**

팜스테이 Farmstay



농가에서 숙박을 하면서 영농·농촌문화 체험을 하고 인근 지역 명승지 관광, 지역 축제까지 참여하는 일석삼조형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팜스테이 마을도 여름휴가를 앞두고 인기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전국의 팜스테이 마을을 일일이 검색하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을마다 프로그램을 한눈에 비교하기도 어렵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행사 '팜스테이(www.farmstay.co.kr)'는 전국 팜스테이 마을의 온갖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마을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예약도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가 선정한 한국형 10대 생태관광지 중 한 곳인 강원 평창 백룡동굴. 7월 말 공개된다. 동아DB

천혜의 아름다움 그대로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발돋움

우포늪·순천만 등 한국형 생태관광지 10곳 선정

자연 그대로를 즐기는 생태관광. 우리나라가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우포늪, 순천만 등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 사업지 10곳을 선정하고, 세계에서 하나뿐인 생태관광지 비무장지대(DMZ)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서늘한 바람이 어둠 속에서 불어온다. 그 어디서도 만나지 못한 시원하고 살가운 자연의 숨결이다. 손전등을 비춰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드름처럼 가늘고 긴 바위들이 울퉁불퉁 솟아 있다. 종유석이다. 그 옆으로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질이 굳어 생긴 석순도 보인다. 땅 위에서 볼 수 없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품은 이곳은 강원 평창군 백룡동굴. 5억 년이라는 지난한 세월을 거쳐 7월 말쯤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백룡동굴은 강원 영서지방의 탯줄이라 불리는 동강 인근의 손꼽히는 명소 가운데 하나다. 뭍에서 가장 긴 석회동굴로 알려진 이곳은 근처 마을에서 동강을 따라 30분 정도 걸으면서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것이 묘미. 그러나 무엇보다 동굴 입구에 들어서면 기존 동굴들과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조명시설이 일절 없다. 동굴에 빛이 들면 이끼류 등이 자라 동굴 원형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험 프로그램도 하루 9회 정도만 운영한다. 1회 최대 인원은 20명 이하다. 체험복과 장화, 헬멧 등 장비는 철저히 구비했다. 생태관광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 환경오염을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특히 이곳은 최근 동강 생태자원을 활용한 강원 평창군 미타면 마하리 일대인 '마하생태관광지'에 자리해 지난해 개관한 민물고기생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백룡동굴과 같이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건강한 생태자원을 품고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가능

한국형 10대 생태관광지

지역명	자원	유형
경남 창녕군 우포늪	내륙습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1천5백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한다.
전남 순천시 순천만	연안습지	갯벌습지보호구역으로 원형에 가깝게 보전되고 흑두루미, 재두루미, 삵 등 다양한 생물이 생존한다.
충남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3백여 종 4백만 마리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
경북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	산·강	소백산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수목, 야생화 등 자연자원이 잘 보전됐다.
전북 진안군 데미샘과 마실길	산·강	섬진강 발원지인 데미샘과 섬진강 도보답사 코스의 출발지.
제주도 거문오름과 서귀포생물권 보전지역	섬	내륙지역과 다른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세계자연유산.
강원 평창군 백룡동굴과 마하생태관광지	화석·동굴	생태경관보전지역이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인 동강과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을 주축으로 생태관광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해안자원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제1호. 32개소 해수욕장과 갯벌, 1백 여 개의 섬 등 천혜의 생태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	DMZ	하루 평균 1천여 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안보 관광지.
강원 화천군	DMZ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관광지.

하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월 말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는 생태관광의 세계화 모델 창출을 위해 한국형 생태관광지 10곳을 선정했다. 특히 우리나라 생태자원의 특성을 고려해 내륙습지, 연안습지, 산·강, 섬, 화석·동굴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해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 최광수 사무관은 "올해 초 잡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생태자원의 보전, 인프라 조성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생명의 땅 DMZ,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이러한 한국형 10대 생태관광지 중 국내외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곳이 바로 DMZ다. 반세기 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생태자원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 국내 최고의 생태자원 보고(寶庫)로 불린다. 멸종위기종 67종과 16종의 천연기념물, 2천7백여 종의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으며 궁예도성 터, 백담사 등 98곳의 문화재와 백마고지, 판문점 등 안보관광지가 자리 잡아 국내외 관광객 방문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60주년으로 DMZ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3월 말 청와대에서 제20차 회의를 열고 DMZ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을 내놓았다. ▲DMZ 일원 생태·문화 공간 조성 ▲생태·문화 콘텐츠 발굴 ▲생태 보존과 지역발전 연계 ▲글로벌 상징화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해 DMZ 일원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DMZ 전담반은 오는 9월까지 DMZ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앞으로의 세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DMZ로 생태여행 떠나요~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는 DMZ 생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DMZ 자전거 투어'를 시작했다.

DMZ가 걸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DMZ 관광 활성화 붐에 따라 다양한 생태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주목받는 것은 지난 5월 경기관광공사가 시작한 'DMZ 자전거 투어'다. 파주시 임진각에서 통일대교, 통일촌사거리, 초평도 근처를 지나 다시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14킬로미터 코스로 매달 넷째 주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다. 매달 둘째 주에 홈페이지(ethankyou.co.kr)에서 참가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참가인원 1백명을 확정한다.

지난 6월 개장한 DMZ 트레킹 코스 '평화누리길'도 있다. 김포시 대명항 함상공원 옆에서 시작해 고양·파주시를 거쳐 연천군 신탄리역 철도 종단점까지 총 1백82킬로미터로 조성된 탐방로로 남한 최북단 지역을 걸으면서 북한 땅과 문화유적, 주상절리 등 절경을 볼 수 있다. 경기도청은 DMZ 트레킹 코스를 상시 개방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 카페 '경기도 걷는 길(cafe.daum.net/ggtrail)'을 개설해 걷기 코스, 교통편 등을 안내하고 있다.

DMZ 자전거 투어 경기관광공사 Tel **031-952-7805**
DMZ 트레킹 코스 경기도청 Tel **031-850-3952**

“숲 속에서 아토피 치료하세요”

국립자연휴양림·국립공원 ‘건강과 치유의 공간’ 각광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공원이 ‘휴양지’에서 ‘건강과 치유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잘 조성한 숲과 자연 속에서 진행하는 치유의 숲, 아토피 캠프 등 건강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여행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는 심신 충전 여행.



복주산자연휴양림(강원 철원군)의 한적한 길에서 한 여행자가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여행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달나무, 굴참나무, 물푸레나무들이 하늘을 덮을 듯 울창한 숲 속에 들어서니 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어요.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오는 숲에서 서늘한 음이온을 쐬며 명상자세를 취하니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맨발에 흙 알갱이를 느끼며 치유정원을 산책하고, 계곡 따라 백리향이나 박하향을 맡으니 어지러운 생각들이 씻은 듯 날아갔습니다.”

어느 도인이 무릉도원을 거닐며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다. 6월 말 정휴림(33 · 경기 광명시) 씨는 남편과 함께 양평 산음자연휴양림에서 1박2일 동안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처럼 꿈같은 체험을 했다. 첫날에는 전문가에게 건강 상태와 스트레스 지수를 점검받은 후 숲길 걷기, 산림욕 기체조, 목공예를 하고 이튿날에는 솔잎차 마시기, 숲 속에서 나무에게 고민 털어놓기, 음이온 마시기 등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을 했다.

정 씨는 “치유의 숲에서 주말에 1백 퍼센트 충전을 받은 느낌”이라며 “앞으로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병원이 아니라 숲을 찾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경기 양평군 용문산 자락의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산음자연휴양림에서 1박2일 또는 당일로 진행하는 ‘치유의 숲’은 산림청이 2009년 1월 국립자연휴양림 최초로 지정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다.

산림치유(Forest Healing)는 실제 건강증진 효과가 검증된 활동이다. 숲 속에는 심리적 안정과 심폐기능 강화에 좋은 피톤치드(식물이 균과 곰팡이에 저항하려고 내뿜는 물질) 말고도 향기, 음이온, 소리, 습도, 햇빛 등 심신에 이로운 요소들이 가득하다. 심지어 숲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진다.

산음 치유의 숲 운영위원 이인자 씨는 “참가자들이 숲을 보기만 해도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다며 좋아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숲의 자연치유력을 일찌감치 국민건강관리법으로 도입했다. 독일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산림

욕을 국민 질병 치료에 이용하기 위해 1백여 년 전부터 산림테라피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에 국가 프로젝트로 나가노현의 '어머니의 숲'을 비롯해 산림치료의 숲 8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산림치유의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통합의학연구소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7월 9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숲의 치유적 효과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에 들어갔다. 연구 대상은 부정맥 및 가벼운 고혈압 증세가 있는 환자 80명이다.

연구 책임자인 고려대 안암병원 통합의학연구소 이성재 교수는 "숲에서 여러 가지 치료요법을 적용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심박변이율(HRV)이 어떻게 변하는지 과학적으로 측정해 10월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욕·생태체험 프로그램 마련

7월 초 경남 남해군 편백자연휴양림에서는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그린캠프'를 열었다. 1박2일 동안 아이들은 아토피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편백나무 숲에서 피톤치드를 듬뿍 쐬면서 체조를 하고, 울산 동구보건소에서 나온 의사의 도움말도 들었다. 이 행사에 아이를 데리고 참석한 김모(40) 씨는 "아토피로 피부가 성치 않은 아이가 이 숲에 와서는 한 번도 긁지 않고 칭얼대지 않았다"고 기뻐했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올여름 건강에 이로운 산림욕과 생태체험 코스를 겸한 3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표 참조 · 사전 예약 필수). 천관산, 방장산 등 12개 자연휴양림에서 진행하는 '아름다운 자연과 만나다' '산과 바다' '숲 속 체험교실'이 그것들이다.

국립공원에서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동아DB

국립공원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과 국립자연휴양림의 건강 프로그램

국립자연휴양림	프로그램명
가리왕산, 용대, 방태산, 희리산	태고의 자연 속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만나다'
검봉산, 남해편백, 천관산, 칠보산, 통고산	바다를 낀 휴양림 찾아가는 '산과 바다'
청태산, 방장산, 복주산	산림욕 즐기고 목공예 즐기는 '숲 속 체험교실'
산음	산림테라피를 위한 '치유의 숲'
남해편백	아토피 그린캠프
국립공원	**프로그램명**
북한산 도봉지구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아토피 과학캠프
지리산	천은사 템플스테이와 숲길 걸으며 건강 찾기
치악산	금강소나무가 살아 숨 쉬는 명품 녹색길 체험
오대산	천년의 숲 맨발로, 옛길로 숲 치유 녹색여행
변산반도	변산반도와 구름호수마을로 떠나는 녹색여행
내장산, 월출산, 태안해안 등	아토피, 천식 등을 치유하는 '건강 찾기 숲 체험'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은 삼성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단국대의료원 등과 협력해 어린이 환경성 질환자의 자연치유를 돕는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과 계룡산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아토피 과학캠프', 오대산국립공원에서는 '옛길로 숲 치유 녹색여행', 치악산에서는 '금강소나무가 살아 숨 쉬는 명품 녹색길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내장산, 월출산,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도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건강 찾기 숲 체험'을 운영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태관광 포털사이트 '에코투어'에서 숲 치유, 자연생태, 해안생태 등 테마별 여행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대부분 유료로 예약을 받지만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저소득층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는 일명 '국립공원 바우처 제도'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8백45명에게 무료 생태관광 바우처를 줬으며, 올해는 한부모가정 어린이와 다문화가정으로까지 수혜 대상을 늘려 6천여 명에게 바우처를 나눠준다.

이처럼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공원이 '휴양'의 차원을 넘어 '건강과 치유'와 함께 '사회적 배려'의 여행지로 거듭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서경덕 관리소장은 "건강과 자연치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예약 신청 및 문의 · 국립공원 생태관광 포털 '에코투어' ecotour.knps.or.kr
산림청 산림휴양 포털 '숲에 on' www.foreston.go.kr



걸으며 즐기는 이야기 三千里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17곳

가히 길의 천국이다. 전남 해남의 '땅끝길', 충북 괴산·충주에서 경북 문경에 걸친 '새재 넘어 소조령길', 강원 강릉·평창의 '대관령 너머길' 등 옛길 3곳을 포함한 17곳이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로 각광받고 있다. 사람마다 개성의 차이가 있듯 길마다 감동의 사연이 있다. 이야기로만 들으면 알 수 없다. 길과 직접 만나야 제대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1 ‘소백산 자락길’이 단양까지 확대돼 충북, 강원, 경북을 아우르는 광역탐방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소백산 자락길이 뻗은 단양 온달산성에서 바라본 소백산 전경.
2 마음으로는 매일 건너고 싶은 철길.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를 잇는 쇠둘레 평화누리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와 올해 ‘옛길’과 역사적인 상징성이 높은 ‘역사길’, ‘예술문화 체험길’, ‘슬로시티 체험길’ 등 4가지 테마를 제대로 구현한 문화생태 탐방로 17곳을 선정했다.

17곳 가운데 ‘땅끝길’, ‘새재 넘어 소조령길’, ‘대관령 너머길’은 각각 삼남대로, 영남대로, 관동대로 구간의 옛길이다. 또 충무공이 백의종군한 경남 산청·하동에 걸친 ‘백의종군로’, 몽촌토성~남한산성을 잇는 수도권의 대표적 역사문화길인 ‘토성산성 어울길’,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강원 철원의 ‘쇠둘레 평화누리길’은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길이다.

한려수도를 조망하며 통영 예술인의 흔적도 느낄 수 있는







1 수도권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길 토성산성 어울길. 2 경남 통영 '토영 이야~ 길'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통영 풍경. 3 그림같은 '슬로시티' 체험길 청산도.

경남 통영의 '토영(통영) 이야~길', 경남 남해의 가천 다랭이마을, 동대만 갯벌 등을 지나면서 현지 해안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남해 바래길'은 예술·문화 체험 테마가 중시된 길이다. 전남 완도 청산도의 '청산여수길' 19.4킬로미터와 전남 신안 증도의 '증도 모실길' 42.7킬로미터에선 느림의 미학을 체험할 수 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는 문화·역사 자원과 자연을 특성 있는 스토리로 엮어 걷기 중심의 관광 코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백산 자락길', '강화 나들길' 등 7곳이 지난해 5월 처음 선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강화 나들길을 종전 57.5킬로미터에서 1백32.5킬로미터로, 소백산 자락길은 40.7킬로미터에서 99.7킬로미터로 각각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화 나들길은 서울 인근에서 가장 인기있는 트레킹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소백산 자락길 역시 경북, 충북, 강원 3개 도를 아우르는 광역탐방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탐방로를 관리하는 지역 단체에 안내판 설치, 스토리텔링,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강화 나들길은 서울 인근에서 가장 인기있는 트레킹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소백산 자락길 역시 경북, 충북, 강원 3개 도를 아우르는 광역탐방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선정된 탐방로에 대해서는 탐방자원 보호, 탐방객 요구사항 대응 등 관리, 유지에 필요한 탐방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규 시설 설치 등을 최소화한다.

강화 나들길·소백산 자락길 등은 거리 연장도

선정된 탐방로에 대해서는 탐방자원 보호, 탐방객 요구사항 대응 등 관리, 유지에 필요한 탐방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규 시설 설치 등을 최소화한다. 또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 탐방지역의 특화된 주제 발굴 등을 통해 문화적, 친환경적 탐방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탐방노선상 여행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탐방로 운영자 등의 교육, 탐방로 심포지엄 개최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Tel 02-3704-9733





3

2010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10곳

테마	탐방로명	지역	길의 특징
3대로 옛길	땅끝길	전남 해남	삼남대로 답사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길(땅끝마을→이진성지→강진)
	새재 넘어 소조령길	충북 괴산, 충주,경북 문경	길박물관, 문경새재, 소조령, 달천, 충렬사 등 영남대로 대표 구간
	대관령 너머길	강원 강릉, 평창	대관령 옛길 넘어 순교자 심스테파노마을, 허난설헌 생가, 경포대 등 동해로 이어지는 길
고난 극복의 역사길	백의종군로	경남 산청, 하동	종군 유숙지(남사예담촌 박호원家), 하동읍성 등 충무공 고난의 길이라는 상징적 역사길
	토성산성 어울길	경기 광주, 하남,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성내천→남한산성을 잇는 수도권의 대표적 역사문화길
DMZ 역사길	쇠둘레 평화누리길	강원 철원	노동당사, 승일교, 고석정, 한탄강 등 철원 DMZ 주변 역사길
남해안 예술 · 생활문화 체험길	토영 이야~길	경남 통영	이중섭, 박경리 등 예술인의 향기와 동피랑골목, 미륵도 등 남해안의 경관이 어우러진 길
	남해 바래길	경남 남해	가천 다랭이마을 지겟길, 해비치 체험마을, 동대만 갯벌 등 남해안 생활문화 체험길
슬로시티 체험길	청산여수(靑山麗水)길	전남 완도(청산도)	청산도 항구, 영화 〈서편제〉 촬영지, 돌담, 몽돌해안을 잇는 그림 같은 풍경길
	증도 모실길	전남 신안(증도)	서해안 낙조, 천년 해송숲, 드넓은 갯벌, 천일염전을 보며 느리게 걷는 슬로시티 체험길

2009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7곳

테마	탐방로명	지역	길의 특징
복합형 (역사문화+생태)	소백산 자락길	경북 영주, 충북 단양	소백산, 죽령폭포 등으로 이어지는 생태체험 탐방로
	강화 나들길	인천 강화	전등사, 강화산성, 이규보의 묘, 광성보, 초지진으로 연결되는 역사 기행길
역사문화형	정약용의 남도 유배길	전남 강진, 영암	정약용의 기가 어린 다산수련원, 다산초당, 구림마을 등을 잇는 역사문화 체험로
생태형	동해 트레일 –영덕 동해 블루로드 –삼척 관동대로	경북 영덕, 강원 삼척	아름다운 해안선과 수려한 경관이 눈부신 길(강구항→신재생에너지관→ 빛의 거리→ 고래불해수욕장)
역사문화형	박경리의 토짓길	경남 하동	소설 〈토지〉의 주 배경지 최참판댁을 거쳐 국민 장터 ‘화개장터’에 이르는 역사체험의 길
예술문화형	질마재 따라 1백리길	전북 고창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과 서정주 시인의 본향을 느낄 수 있는 예술 문화형 길
생활문화형	여강 체험길	경기 여주, 강원 원주	남한강을 따라가며 명성왕후 생가, 세종대왕릉 등 조선의 명인들의 자취를 느끼는 역사문화 체험길



자연 속 나만의 별장 '오토캠핑'

걷기 열풍과 함께 한국사회를 강타한 녹색여행 트렌드가 오토캠핑이다. 이젠 국민운동 수준으로까지 번졌다. 오토캠핑은 가족과 함께 자연에서의 휴식을 모토로 한다. 이곳저곳 눈도장 찍기 바쁜 여행에서 자연의 한자리에 머물러 휴식하는 가족 여행으로의 변화, 그 중심에 오토캠핑이 있다.

걷기와 오토캠핑, 이 두 가지는 아주 이질적이면서도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이질적인 것은 여행수단의 차이다. 걷기는 가장 원초적인 이동수단인 자신의 두 발을 이용한다. 오토캠핑은 가장 문명화된 수단인 차량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는 것일 뿐, 걷기와 오토캠핑에 심취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행의 본질은 같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녹색여행'이라 할 수 있다. 걷기와 오토캠핑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여행 방식이란 점에서 뿌리가 같다.

녹색으로의 오토캠핑, 더 범위를 넓혀 캠핑은 '삶의 무대를 자연으로 잠시 옮기는 일'이다. 현대사회의 문명화가 가속화할수록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갈망을 품게 된다. 오토캠핑이 자연주의적 여행이라는 것은 캠핑장에 가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캠퍼들은 캠핑장에 도착하면 '또 하나의 집'을 꾸리는 일에 전념한다. 이 일은 보통 2시간씩 걸리기도 한다. 캠핑 사이트



자연의 한자리에 머물러 휴식하는 가족 여행으로의 변화,
이 같은 올여름 여행 트렌드는 오토캠핑이 주도한다.

가 완성되면 캠퍼는 그 속에 들어앉는다. 안락의자에 몸을 맡긴 채 세상을 관조한다. 캠퍼가 바라보는 세상은 눈앞에 펼쳐진 숲이며, 강이며, 바다다. 그 숲과 강과 바다를 보면서 마음의 눈으로는 살아온 시간에 대한 성찰이나 존재의 가치처럼 조금은 철학적인 것을 훑는 일, 그것이 캠핑의 진정한 멋이다.

오토캠핑의 확산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광 수용태세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이미 오토캠핑장을 조성한 몇몇 시군의 성공사례가 전파되면서 지자체마다 너도나도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캠핑, 자연에게 다가가는 자연주의 여행 확산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은 10여 개. 하지만 2011년 하반기에는 30여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도 한몫하고 있다.

지자체가 최근 조성하는 오토캠핑장은 이전의 야영장과

초보라면 편의시설, 고수라면 자연미 고려
캠핑장, 두 가지 기준으로 선택해야

캠핑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캠퍼마다 다르다. 크게 나누자면 편의시설이 좋은 곳과 자연이 좋은 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의시설이 좋은 곳은 오토캠핑에 적합한 시설이 갖춰진 곳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한탄강오토캠핑장(경기 연천), 자라섬오토캠핑장(경기 가평), 땅끝오토캠핑장(전남 해남), 망상오토캠핑장(강원 동해), 송지호오토캠핑장(강원 고성) 등이 있다.

이런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에 조성한 곳으로 샤워장과 취사장, 전기 등 편의시설이 완벽하다. 따라서 편의시설에 민감한 여성들에게 큰 공감을 얻는다. 하지만 여름철의 경우 그늘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캠핑 고수들은 편의시설보다 자연미가 좋은 캠핑장을 선호하는 편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자연휴양림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자연휴양림은 이전의 캠핑 형태에 맞춰져 있어 자동차의 접근성이나 캠핑장의 규모, 전기 사용 여부 등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

자연휴양림을 찾는 캠퍼들은 장비를 최소화해서 찾는다. 큰 텐트보다는 작은 텐트를 이용하고, 타프(방수포) 대신 숲이 주는 자연적인 그늘을 좋아한다. 대표적인 곳은 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 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 청옥산자연휴양림(경북 봉화), 방태산자연휴양림(강원 인제), 팔현캠프(경기 남양주) 등이다.

여름철에는 계곡과 바다를 선호한다. 노련한 캠퍼들은 단연 계곡을 첫손에 꼽는다. 숲 그늘은 기본이고 계곡 물놀이까지 보장되기 때문이다. 반면 젊은이들은 바닷가를 선택한다. 파도를 타넘으며 즐기는 여름 바다의 강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여름에는 바닷가보다 계곡이 쾌적한 캠핑지로서는 두 세배쯤 좋다. 강원 인제나 평창, 해안에 접한 경북 북부의 계곡형 캠핑장은 계곡과 바다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낮에는 바다에서 놀다가 저녁에는 시원한 계곡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제에서는 미시령터널을, 평창에서는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내륙에서도 30분~1시간이면 바다로 갈 수 있다.

편의시설이 좋아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탄강오토캠핑장.



동아DB



자연휴양림을 찾는 캠퍼들은 장비를 최소화해서 찾는다. 큰 텐트보다는 작은 텐트를 이용하고, 타프(방수포) 대신 숲이 주는 자연적인 그늘을 좋아한다.



숲과 강과 바다를 보면서 마음의 눈으로는 살아온 시간에 대한 성찰이나 존재의 가치처럼 조금은 철학적인 것을 훑는 일, 그것이 캠핑의 진정한 멋이다.

는 질적으로 다르다. 캠핑에도 호텔이나 콘도와 같은 객실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호텔 객실에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듯이 캠핑장에도 기본적으로 사계절 온수가 나오는 샤워장과 쾌적한 화장실이 필요하다.

또 콘도에 주방이 있는 것처럼 캠핑장의 취사장도 온수가 나와야 하고, 비가 내려도 걱정이 없도록 최소한 지붕을 갖춰야 한다.

오토캠핑장이 제대로 조성되면 관광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우선 해당 지자체의 이미지가 바뀐다. 지자체에는 두 종류가 있다. 현대적인 오토캠핑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다. 그중에서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강원 동해시와 평창군, 전남 해남군, 충남 태안군 등은 오토캠핑장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곳의 캠핑장은 사계절 내내 캠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름 성수기가 아닌데도 주중에 캠핑 온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주말의 예약전쟁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텐트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여행자일지라도 숙소를 오토캠핑장에 설치된 캠핑 트레일러로 잡는 경우가 많다.

“이제 캠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바뀌고 있다. 캠핑은 가난한 여행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숙박이란 고정관념 대신 여행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자연주의 여행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캠핑문화의 확산은 기존에 진행된 체험마을의 변화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어촌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무수히 많은 체험마을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 국토해양부의 어촌체험마을,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등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쾌적한 숙박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 단점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이 캠핑장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행자가 원하는 수준의 쾌적한 숙박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화장실과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제외하면 시설 투자비가 적게 들고, 관리의 효율도 아주 높다.


동아DB

이것을 간파한 체험마을에서는 캠핑장을 조성해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강원 홍천군 내면 살둔마을과 양양군 서면 서림마을, 충남 아산시 둔포면 배마을을 들 수 있다. 이곳은 마을의 잔디밭이나 솔밭, 폐교 운동장을 활용해 캠핑장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캠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캠퍼들은 캠핑장에서 숙박도 하면서 농촌체험을 하고 그 마을의 특산물을 구입한다.

이제 캠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바뀌고 있다. 캠핑은 가난한 여행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숙박이란 고정관념 대신 여행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자연주의 여행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캠핑 하면 떠오르는 불편한 추억을 말끔히 씻어줄 만큼 캠핑 장비와 캠핑장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레저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녹색 오토캠핑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오토캠핑문화의 확산과 기반시설의 확충은 관광 수용태세의 질적인 변화를 넘어 한국의 여행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 될 것이다. G

글 · 김산환(캠핑여행작가)

캠핑 시 주의사항

구명조끼는 기본, 화상사고도 조심

캠핑은 자연을 찾아가는 일이다. 자연히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 여름 캠핑의 가장 큰 위험은 물이다. 해마다 물놀이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구명조끼 착용은 기본. 음주 후 물놀이는 절대 금지다. 갑작스런 폭우가 내릴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캠핑 사이트는 반드시 퇴로가 확보된 안전한 곳에 구축한다. 계곡이나 강변은 아주 위험하다.

캠핑에서는 화기를 다루는 일도 많다. 크고 작은 화상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스토브(버너)와 같은 조리도구는 안전한 곳에서 다룬다. 코펠이나 랜턴은 가열된 상태에서 만지면 화상을 입기 십상이다. 모닥불은 반드시 화로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캠핑장에는 크고 작은 위험 요소가 많다. 특히 망치나 톱 등이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한다. 텐트나 타프를 지탱하기 위해 설치하는 당김줄(스트링)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다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당김줄에 눈에 잘 띄는 표식을 해두거나, 통행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특히 팩의 경우 끝까지 확실히 박아주어야 걷다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다.

모기나 해충에 대한 대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정상인은 모기에 물려도 하루만 지나면 아문다. 그러나 피부가 약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물린 자국이 흉하게 남는다. 바르고 뿌리고 태우는 것 등 모기약은 다양하게 준비한다. 특히 숲에 갈 때는 뱀을 조심한다. 비 온 뒤 양지바른 바위틈은 뱀이 즐겨 찾는 곳이다. 풀숲을 거닐 때는 나뭇가지로 소리를 내서 뱀이 도망가도록 한다.

벌집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땅벌의 경우 흙 속에 집을 짓기 때문에 모르고 벌집을 건드릴 수가 있다. 이때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한 후 몸을 최대한 낮춰 엎드려 있는 게 상책이다. 급하다고 물로 뛰어들면 위험하다. 그리고 처음 캠핑을 시작할 때는 정해진 곳, 즉 캠핑장에서만 하도록 한다.

전국 주요 오토캠핑장

캠핑장명	주소	전화번호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서울 강동구 둔촌동 562	02-478-4079
난지캠핑장	서울 마포구 상암동 495-81	02-304-0061
한탄강오토캠핑장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640	031-833-0030
자라섬오토캠핑장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산 7	031-580-2700
땅끝오토캠핑장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245	061-533-9324
망상오토캠핑장	강원 동해시 망상동 393-39	033-534-3110
오서산자연휴양림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 52-2	041-936-5465
송지호오토캠핑장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169-2	033-681-5244
돈내코유원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459	064-733-1584
오도산자연휴양림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 150	055-930-3733


코레일

자전거를 싣고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에코레일 자전거열차'는 매주 토요일 서울역에서 출발한다.

착한 교통 열차에 자전거 싣고 씽씽

'에코레일 자전거열차' 매주 토요일 운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을 건강하게 나고 싶다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철도가 만난 '에코레일(Eco-Rail) 자전거열차' 여행이 제격이다. 코레일이 매주 토요일마다 운행하는 이 열차는 자전거를 싣고 주마다 행로를 바꿔가며 골라 타는 재미가 있다.

주말에 자전거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자전거는 지구환경과 우리 몸을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착한' 교통수단이다. 다만 승용차에 싣고 먼 거리를 여행하기엔 불편한 점이 많다.

코레일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를 싣고 장거리를 오갈 수 있는 '에코레일(Eco-Rail) 자전거열차'를 매주 토요일에 운행 중이다.

이 열차는 자전거 거치용(1백22대) 전용객차 2량과 승객을 2백88명까지 태울 수 있는 객실 4량이 짝을 이뤄 함께 달린다. 자전거 전용객차에는 산악자전거(MTB)는 물론 일반 자전거도 실을 수 있다. 이 덕분에 자전거로 오가며 꽉 막힌 도로에서 더 이상 힘을 빼지 않아도 된다. 승용차에 비싼 거치대를 달 필요도 없어졌다.

자전거코레일 박진성 상품개발팀장은 "에코레일 자전거열차는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이 적고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매주 2백명 내외가 이용하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매주 토요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이 열차는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충남 보령, 강원 영월 코스를 번갈아 달린다. 7월 24, 25일에 출발하는 충북 옥천 코스는 옥천 포도축제와 연

계해 진행되므로 축제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요금은 4만~5만원 선이며 여행 시기와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곡성 에코레일 자전거열차

전남 곡성의 섬진강변을 따라 펼쳐지는 루트. 라이딩 수준별로 초·중·고급의 3개 코스가 있다. 참가자들은 라이딩 도중 곡성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녹음이 울창한 태안사에 들를 수 있고, 전라선 폐선을 활용해 관광용 증기기관 열차를 운행하는 섬진강 기차마을도 찾을 수 있다.

- **섬진강 코스(30킬로미터 · 편도)** 구례구역~예성교~학생의집~연꽃방죽~기차마을(2시간 소요)
- **태안사 코스(68킬로미터 · 왕복)** 기차마을~연꽃방죽~학생의집~예성교~유봉2리사무소~태안사(5시간)
- **봉조리 코스(39킬로미터 · 순환)** 기차마을~연꽃방죽~학생의집~통검재~기차마을(3시간 30분)
- **진둔치 코스(54킬로미터 · 순환)** 기차마을~명성호수산장~진둔치~죽곡면사무소~유봉2리사무소~예성교~학생의집~연꽃방죽~기차마을(4시간 30분)
- **가격 4만5천원**

>> 옥천 에코레일 자전거열차

'향수'의 시인 정지용의 고향으로 유명한 충북 옥천은 청정한 금강이 유려하게 굽이치는 고장이다. 이곳의 금강변 코스는 지형이 완만해 초보 라이더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금강변에 깃든 고즈넉한 강변마을, 시인 정지용의 생가를 찾다 보면 푸근한 유년기의 향수에 젖어들게 된다.

- **금강 코스(56킬로미터)** 옥천역~금강휴게소~원당교~안남면사무소~장계국민관광지~옥천역(3시간 30분)
- **대청호 코스(82킬로미터)** 옥천역~장계 국민관광지~용촌분교~화남면사무소~방아실 입구~추소초등학교~이지당~옥천역(5시간 30분)
- **가격 4만7천원**

>> 보령 에코레일 자전거열차

머드의 고장으로 유명한 충남 보령은 동양 유일의 조개껍데기 백사장을 지닌 대천과 무창포 등 해변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해안도로와 임도를 따라 가는 코스가 일품이다. 미산 쪽을 찾으면 내륙 속에 바다처럼 펼쳐진 보령댐 덕에 호반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 억새의 명산 오서산에서는 산과 바다, 호수가 자아내는 그림 같은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 **서해안 코스(40킬로미터)** 대천역~대천해수욕장~무창포해수욕장~웅천천~웅천역(3시간)



코레일

에코레일 자전거열차의 자전거 전용객차 내부. 한 승객이 거치대에 자전거를 매달고 있다.

- **오서산 코스(47킬로미터)** 청소역~던목고개~쉰질바위~오서정~공덕고개~오서산자연휴양림~청소역(4시간 30분)
- **가격 4만2천원**

>> 영월 에코레일 자전거열차

청정하고 수려한 강원 영월 동강은 초보 라이더들이 손꼽는 명품 코스 중 하나. 반면 영월역에서 시작하는 영월 관광지(서강) 코스는 강을 끼고 도는 동쪽은 높은 절벽에 나무가 울창하고, 서쪽은 경사가 완만해 중급자들에게 적합하다. 라이딩 도중 한반도 지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의 선암마을은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석항천+영월동강 코스(36킬로미터)** 석항역~31번 옛 국도~ 덕삼교~ 동강길 ~ 거운교~ 영월역(2시간 30분)
- **영월 관광지(서강) 코스(47킬로미터)** 영월역~장릉~선돌~배일치~선암마을~남면사무소~청령포~영월역(4시간)
- **별마로 천문대(봉래산) 코스(29킬로미터 순환)** 3시간
- **망경대산 임도코스(44킬로미터)** 4시간
- **가격 4만4천원**

서울역 여행센터 Tel **02-3149-3333**
코레일 www.korail. com



휴가철을 맞아 열차를 타고 전국의 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동아DB

열차표 한 장으로 전국 일주

다채로운 체험 가능한 명품 열차여행 인기몰이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열풍과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열차여행이 인기다. 교통체증과 운전 사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열차의 장점을 경치 좋고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관광명소와 결합한 '명품' 열차여행 정보를 모았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래머 홍지윤(24) 씨는 최근 코레일에서 열차 자유이용권인 '내일로(RAIL路) 티켓'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올여름 휴가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여행 대신 친구들과 배낭을 메고 전국 각지를 열차로 돌아보기로 한 것.

홍 씨는 "사람도, 길도 모두 낯선 해외여행보다 전국 배낭여행이 훨씬 남는 게 많을 것 같다"며 "아직 가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명소를 열차로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철도를 통해 미래를 열어간다'는 뜻이 담긴 내일로 티켓은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자유석과 입석을 7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2007년 첫 운행한 이래 해마다 이용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

코레일의 집계에 따르면 2007년에는 8천여 명, 2008년 1만3천여 명, 지난해엔 전년 대비 86퍼센트 증가한 2만4천여 명이 이 티켓을 이용했다.

이천세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티켓 한 장으로 열차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할 수 있는 내일로 티켓은 젊은이들의 여름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30, 40대도 자녀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여행상품으로 내일로 티켓을 꼽는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일로 티켓의 판매 대상 연령을 종전의 만 18~24세에서 만 19~25세로 조정하고, 티켓 사용기간 중 1회에 한해 KTX를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티켓 구입을 원하는 청소년은 신분증을 가지고 승차권 발매 단말기가 설치된 전국 철도역(승차권 판매 대리점 제

외)을 방문하면 된다.

티켓 판매기간은 8월 31일까지며 가격은 5만4천7백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부도 갯벌체험 열차여행, 지리산 둘레길 여행 등 다양한 철도여행 상품이 나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들 상품은 휴가철에 자주 일어나는 교통체증과 운전 사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비용도 적게 드는 열차의 장점을 전국 각지의 명소와 결합해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한 체험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철도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코레일관광개발 길기연 사장은 "철도는 에너지 효율성이 항공기의 27배, 고속버스의 29배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녹색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더욱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품 열차여행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부도 갯벌체험

경기도 서해안의 어촌체험마을인 '종현마을'로 가서 바지락 캐기 등 갯벌체험을 즐기는 여행상품. 참가자는 전동차에서 통기타와 팬플루트 연주 등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신길온천역(4호선 안산역)에 도착해 버스로 체험마을까지 이동할 때는 안산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재미있는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대부도 특산품인 포도와 포도주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이 상품의 장점.

운행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다. 1박2일 캠프형 1회, 당일 전세열차형 10회, 신길온천역 집결형 12회 등 총 23회에 걸쳐 운행한다. 당일 상품 가격은 어른 2만5천원, 어린이 2만3천원이고, 1박2일인 경우는 어른 6만9천원, 어린이 5만9천원이다. 문의 및 예약은 코레일투어 홈페이지(www.korailtour.com)나 전화(1544-4590)로 할 수 있다.

>> KTX 타고 떠나는 지리산 둘레길

걷기여행의 명소인 지리산 둘레길까지 KTX와 버스를 타고 가서 자연과 전통을 체험하는 웰빙 여행상품으로 7월 1일부터 매일 운행하고 있다. 이용객은 오전 7시 20분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로 익산역까지 이동한 후 대기 중인 버스로 도보여행 출발지점인 지리산 매동마을로 가게 된다.

여행코스는 매동마을, 오솔길, 다랑이논길, 창원마을, 금계폐교를 잇는 10킬로미터 구간. 지리산의 시원한 바람과 싱그러운 녹음이 걸음걸음마다 함께하는 이 구간을 걷는 데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상품가격은 5만9천~6만9천원.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나 보군여행사(02-3210-121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새만금 트레킹

서울 용산역, 대전 영동역, 부산 기장역 등에서 출발해 새만금 방조제와 신시도를 관광하는 여행상품. 군산시의 후원으로 운행되는 이 상품의 이용객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의 33킬로미터 구간과 바닷물을 들이고 내보내는 배수갑문의 장관을 볼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매일 운행한다. 용산역에서 오전 6시 50분에 KTX를 타고 출발해 새만금과 신시도를 자유 트레킹한 후 내소사와 채석강까지 둘러보고 오는 당일코스. 이용요금은 용산역 기준으로 5만9천원이다. 예약 문의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나 용산역 여행센터(02-3780-5555)로 하면 된다.

>> 한탄강 래프팅

시원한 물보라를 가르며 내려오는 래프팅의 매력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으로 코레일관광개발이 철원군과 함께 개발했다. 상품의 종류는 주변의 기암절벽이 수려한 한탄강 래프팅 코스(2만9천~6만원)와 스릴 넘치는 서바이벌 코스(3만4천~6만5천원), 4륜 오토바이로 달리는 산악바이크 코스(3만9천원) 등 3가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코스를 골라 당일이나 1박2일로 여행할 수 있다.

1박2일 코스 이용자는 체험을 마친 후 펜션 숙박과 숯불 바비큐를 즐기며 별빛 가득한 한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운행기간은 8월 말까지. 상품에 대한 문의는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나 전화(1544-7755)를 이용하면 된다. G

글 · 김지영 기자

강원 철원군 한탄강을 찾은 관광객이 신나게 래프팅을 즐기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0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에서 맷돌 돌리기 체험을 하는 가족. 아이 표정이 '만만찮네' 하는 듯하다.

'심봤다 삼촌'과 '동막골 이모'와 함께 놀자

2010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어른들에게는 휴식과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재미와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농어촌 체험마을들이 서울로 총출동했다. 전국의 농어촌 체험마을 1백59곳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10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은 도시민에게 농어촌 체험관광의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유용한 행사가 됐다.

"삐악! 삐악! 삐악…."

어디선가 들려오는 병아리 울음소리에 벌써 도시를 벗어난 기분이다. 하지만 이곳은 서울 하고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다. 이곳에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2010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마지막 날,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나오는 아이들 손에 들린 흰색 병아리장에는 보송보송한 노란 병아리 두 마리씩이 들어 있었다. 이날이 마침 일요일이다 보니 행사장 안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대부분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은 도시민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마련한 축제와 정보의 장(場)으로 올해로 2회째다. 올해는 강원 평창군 코뚜레마을, 경남 산청군 갈전그린에너지체험마을 등 전국 농산어촌 체험마을 1백59곳이 참가해 지난해(1백여 곳 참가)보다 참여 마을 수가 크게 늘었다. 이들 마을은 대나무차, 오미자차, 치즈 등 고장 특산물을 가져와 관람객들에게 맛보이거나, 토끼 · 염소 · 닭 · 돼지 등 가축 만지기, 나무 목걸이와 호루라기 만들기, 전통 활쏘기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미리 즐길 수 있게 했으며 여행 상담과 숙박 예약도 현장에서 접수했다.

병아리장 만들기 체험을 선보여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선 곳은 충북 증평군의 정안녹색체험마을 부스였다. 부스에서 만난 이 마을 장순임(70) 할머니는 "우리 마을엔 병아리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나이도 잊은 채 마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겨울이면 사냥, 봄이면 생태숲과 청보리축제, 여름에는 색깔 고구마와 옥수수, 가을에는 김장과 메주 체험까지 1년









1 행사장 한복판을 장식한 초대형 수탉 모형.
2 아빠도 빠질 수 없는 도자기 빚기.
3 미래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과녁을 바라보는 시선이 진지하다.
4 다듬이질은 이렇게!

내내 먹을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어요.”

‘몸’으로 체험마을을 알리는 이들도 있었다. 강원 평창군 동강생태체험여행을 홍보하는 이동근(48) 씨. 부스에 카약과 래프팅 보트를 전시해놓고 자신은 동굴탐사용 헬멧과 카약 노를 손에 쥔 채 체험 분위기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이 씨는 생태학습형 체험동굴로 7월 15일부터 일반인에게 처음 개방되는 평창군 미탄면의 백룡동굴을 자랑거리로 꼽았다.

“백룡동굴은 그동안 미개방으로 보존돼온 자연 석회동굴입니다. 체험 신청을 하면 두 시간 반 동안 종유석과 석순, 석주 등 수억 년간 간직해온 지하의 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통한복 차림에서 새마을 지도자 복장까지, 행사장을 누비며 아이들을 즐겁게 해준 전국 방방곡곡의 ‘삼촌’ ‘이모’들도 빠질 수 없다.

원래 여기서 ‘삼촌’이란 농촌과 어촌, 산촌을 아우르는 말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체험마을을 도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각 지역별 ‘삼촌’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삼촌이 있으니 이모가 빠질 수 있나. 그래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경기도의 ‘새마을 삼촌과 백설기 이모’, 강원도의 ‘심봤다 삼촌과 동막골 이모’, 충북의 ‘그래유 삼촌과 심심이 이모’, 전남의 ‘거시기 삼촌과 토실이 이모’, 경남의 ‘남이가 삼촌과 방실이 이모’ 등으로 그 이름도 다양하다.

행사장에서 만난 임정아(35 · 수원시 영통구) 씨는 “다섯 살 난 딸아이와 주말 외출을 계획하다가 방송뉴스에서 이곳 페스티벌 소식을 듣고 남편도 함께 오게 됐다”며 “아이가 나무 목걸이 만들기도 하며 무척 좋아해 농어촌으로 가족 체험 여행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는 안승준(11 · 서울 명일초등 5학년) 군은 “책에서만 보던 소 코뚜레를 이곳에서 처음 봤다”며 부스마다 전시된 농기구며 짚신, 전통공예품 등을 신기해했다.

이렇게 보고 즐길 거리와 농어촌 여행정보도 많은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는 아쉽게 막을 내렸지만 인터넷 홈페이지(huegafestival.com)는 계속 문을 열어 농어촌 체험 여행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을 통해 체험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장점과 체험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면서 전국 농어촌 체험마을 방문객이 2008년 2백81만명(매출액 3백74억원)에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A의 유행 속에서도 3백63만명(매출액 4백45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재연 농촌사회과장은 “페스티벌 관람객도 지난해 9만1천여 명에서 올해 11만명으로 늘어났다”며 “농산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보고 느끼고 즐기는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저탄소 녹색관광에 2천4백억원 투자

녹색관광 시장 점유율 2014년까지 25퍼센트 확산

2012년에는 여행하는 동안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지 알 수 있고,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상품권, 현금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녹색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관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의 관광을 저탄소 녹색관광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나섰다.

녹색관광이 대세다. 명승지를 둘러보는 데서 벗어나 생태를 체험하고 즐기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는 것. 하지만 관광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분야다. 이동하는 동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2005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5퍼센트가 관광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는 새로운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관광산업을 저탄소 녹색관광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나섰다.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높은 녹색성장 산업인 관광을 녹색관광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녹색관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관광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녹색관광의 시장 점유율을 2008년 20퍼센트에서 2014년 25퍼센트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녹색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녹색경영을 확산시키며, 관광객들은 녹색여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방향에서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설정했다.

녹색관광 인프라, 지역 문화·역사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먼저 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해 녹색관광 제도를 정비한다. 최근 녹색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녹색관광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아직 정립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녹색관광의 정의를 신설하고 녹색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로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 상품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발된다. DMZ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로 조성되고 전남 신안, 장흥, 완도 등 슬로시티는 생태, 친환경 농업, 전통식품 등을 연계한 슬로라이프, 슬로푸드 지역으로 특화한다.”

했다. 이렇게 되면 관광개발 기본계획, 권역계획, 관광지 지정계획 등을 마련할 때 녹색관광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녹색관광 인프라와 상품을 늘릴 수 있다.

또 우수한 품질을 갖춘 생태관광 상품, 콘텐츠, 숙박업소, 생태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실시해 기존 관광과 차별화된 생태관광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녹색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스템과 여행객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거리, 교통수단, 숙박시설, 동반자 수에 따라 여행 활동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2년까지 개발해 보급한다.

또 관광객이 관광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면 현금, 탄소캐시백,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녹색관광이 활성화되려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관광 매력도 높아져야 한다. 정부는 녹색기술을 도입한 녹색관광 인프라와 지역의 문화, 역사와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녹색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저탄소 녹색관광 위한 편의시설도 구축

이미 순천만, 창녕 우포늪, 제주 거문오름 등 10곳을 선정해 생태관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옛길, 비무장지대(DMZ), 4대강 등 테마가 있는 녹색여행길인 문화생태 탐방로를 조성해나가고 있다. 2009년에 이어 올해 해남 땅끝길, 남해 바래길 등 10곳이 추가 선정된 문화생태 탐방로는 2012년까지 1천2백 킬로미터가 정비된다.

녹색관광 상품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발된다. DMZ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로 조성되고 전남 신안, 장흥, 완도 등 슬로시티는 생태, 친환경 농업, 전통식품 등을 연계한 슬로라이프, 슬로푸드 지역으로 특화한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녹색관광 자원, 시설, 상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녹색관광 종합 홈페이지를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또 저탄소 녹색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와 도보여행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늘리고,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을 녹색여행으로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관광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14년까지 약 2천4백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 전상덕 사무관은 “녹색관광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환경과 녹색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질 뿐 아니라 내수 촉진과 관광수지 개선 등 관광산업에서의 녹색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일러스트 · 남용우

“녹색관광 활성화로 고용창출 기대”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기획관



조영철 기자

녹색관광 기본계획으로 녹색관광 활성화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녹색관광의 중요성과 녹색관광이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녹색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일 관광레저기획관의 이야기를 들었다.

녹색관광이란 무엇입니까.

녹색관광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을 관광산업 분야에 도입하고, 친환경 개발을 통해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생태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관광상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광산이나 폐철로 등 유휴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재순환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녹색관광이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국민소득 증대와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관광 패턴이 기존의 관람 위주에서 생태, 레저, 스포츠 등이 어우러진 체험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녹색성장이 국정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고, 순천만이나 정선 레일바이크처럼 녹색생태관광을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모델이 나타나면서 녹색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색관광 기본계획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마련한 것입니다.

녹색관광이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녹색관광이 활성화되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녹색관광이 전체 관광시장의 25퍼센트만 돼도 그 부가가치가 5조원에 달하고 1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천만 생태관광지의 경우 지난해 2백30만명이 다녀가 9백58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6천4백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냈습니다.



아니 온 듯 다녀오기
자연과의 약속 '에코투어'

에코투어가 지구를 죽인다? 친환경적이어야 할 에코투어가 되레 현지의 생태와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다. 에코투어가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겉만 '에코'로 포장한 이른바 '그린워시(Greenwash)' 여행상품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에코투어를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약방의 감초' '명품 조연' 등으로 불리는 연기자 박철민(43). 하회탈처럼 넉넉한 웃음이 인상적인 그는 연극 〈늘근도둑 이야기〉, 영화 〈목포는 항구다〉, 드라마 〈뉴 하트〉 등 여러 장르를 종횡무진하고 있다. 그런 박 씨가 발을 더 넓힌 데가 있다. 바로 '착한여행 홍보대사'가 그것이다.

착한여행은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안브릿지에서 생태여행, 책임여행, 공정여행 등의 새로운 여행을 제안하기 위해 문을 연 사회적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봄 우리나라 최초로 '탄소상쇄 캠페인'을 벌이고, 같은 해 7월에는 베트남 메콩강 유역을 돌아보는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등 에코투어 분야의 선두주자다. 착한여행은 올해 2월 서울시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원주민, 평화, 생태'로 떠나는 섬나라 여행 시리즈를 내놓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해 착한여행에서 제안한 홍보대사를 선뜻 맡았다. '친환경적으로 여행하자'는 착한여행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연예인 최초로 '탄소상쇄기금'을 기부했다. 비행기를 타면서 여행자가 발생시킬 탄소에 대한 상쇄비용을 기부한 것이다.

그가 여행을 간 곳은 베트남 반젠마을. 수도 하노이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9시간이 걸리고, 거기에서도 자동차를 타고 더 들어가야 하는 소수민족 마을이다. 베트남 정부와 국제 시민단체에서 책임여행지로 지정했는데, 현지인들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자는 게 그 취지다.

그는 현지에서 되도록 친환경 여행을 다니기 위해 노력했다. 자동차를 타는 대신 걸어서 다니고, 자신의 이름을 단 나무를 심기도 했다. 숙박은 샤워시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춘 현지인의 집에서 해결했다.

박 씨처럼 에코투어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국제에코투어리즘이사회(TIES)는 "에코투어는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환경조건을 보전하며 지역 원주민의 행복을 배려하는 여행"이라고 정의했다.

지난해 출간된 공정여행 가이드북 〈희망을 여행하다〉(소나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에코투어리즘이 인기 있는 여행 트렌드로 나타난 때는 1990년대다. 관광업이 매년 4퍼센트 성장하는 동안 에코투어리즘은 10~30퍼센트 급성장했다.



일러스트 · 이우정

하지만 급성장에 따른 그늘도 있다. 일반 여행과 차별화해 에코투어를 '자연'과 '모험'을 찾는 여행이라고 분류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자연과 모험을 찾아 떠날수록 생태가 파괴되는 여행이 되고 만다. 이와 같은 현상을 빗대 일부에서는 '초록 옷을 입은 가짜 에코투어'라거나 '에코투어가 아닌 자신들만을 위한 에고투어(Egotour)'로 변질되었다고 말한다.

세계 10대 생태적 게스트하우스로 선정된 필리핀 카미긴 트리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로잘리 제루도도 이런 현실을 가슴 아파한다.

"필리핀 남쪽의 작고 아름다운 화산섬 카미긴은 원시림, 산호초 군락, 대왕조개 등 해양생태계가 다양한 보석 같은 섬입니다. 덕분에 인구 7만명이 살아가는 카미긴을 찾는 여행자는 한 해 25만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더 많이 찾아올수록 섬과 섬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에 '에코여행' '공정여행' 등 새로운 대안여행의 콘셉트를 처음 도입한 NGO 이매진피스의 자원활동가이자 〈희망을 여행하다〉의 저자 이혜영 씨는 "에코투어를 갈 때는 무늬만 녹색인 이른바 '그린워시' 상품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늬만 녹색인 '그린워시' 상품 경계해야

"국내에는 에코투어가 1990년대 이후 도입돼 아직 그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이나 오지를 찾아가 노는 게 에코투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죠. 여행사에서 출시하는 제대로 된 에코투어 상품을 고르려면 무엇보다 여행사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에코여행, 공정여행 등 '지속가능한 여행'에 공감하는 곳들이 모여 사단법인 '지속가능한 관광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 네트워크에는 착한여행, 트래블러스맵 등 사회적기업 6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용노동부, 하자센터, NGO 등과 연계해 제대로 된 에코투어 문화를 뿌리내리는 게 목적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에코투어를 하려면 이들 NGO나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 된다. 2008년 이매진피스는 여행 전후와 여행 중 지켜야 할 수칙을 제안했다.

그중 ▲지구를 돌보는 여행(비행기 이용 줄이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물 아껴 쓰기) ▲동식물을 돌보는 여행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수칙 외에 ▲인권을 존중하는 여행 ▲지역에 도움을 주는 여행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여행 ▲기부하는 여행 등 에코투어의 범위를 넘어 그 지역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정여행 수칙이 들어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에코투어 에티켓 10가지



1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자동차는 지구온난화의 주범! 산을 가로지른 고속도로는 동물들에게 위험하다.

2 일회용품을 줄이자 여행에서 남겨야 할 것은 발자국과 추억. 쓰레기를 만드는 여행은 안 돼요!

3 지역의 농산물을 먹자 모든 걸 슈퍼마켓에서 사기보다는 그곳의 재래시장도 구경하며 지역의 먹을거리를 이용하자.

4 자연을 아끼자 자연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함부로 동식물을 가져오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5 TV를 켜지 말자 며칠만이라도 TV를 끄고 자연과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6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 전기와 물 사용을 줄이는 것도 에너지를 아끼는 일이다. 지구가 너무 뜨겁다.

7 공부하고 떠나자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작은 도감을 챙기거나 미리 관련 책을 보고 가면 훨씬 풍성한 여행이 될 것이다.

8 자연에서 놀자 놀이공원이나 리조트보다는 자연을 만나고 즐기는 여행을 하자. 자연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챙기자.

9 느린 여행을 즐기자 자전거 여행, 걷기 여행같이 자연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자.

10 자연을 지키는 단체를 돕자 지역의 자연을 지키는 시민단체에 여행 경비의 1퍼센트를 기부하는 건 어떨까. 하루 정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추억담을 만들 수 있다.

자료 제공 · 이매진피스 imaginepeace.or.kr

에코여행 정보

지속가능한 관광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sustainabletourism.kr**
착한여행 **goodtravel.kr**
트래블러스맵 **travelersmap.co.kr**



책으로 떠나는 녹색여행

국내 녹색여행 참고도서 10選

이번 여름 휴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녹색여행을 떠나자.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걷기에서 자전거 타기까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건강도 되찾는 생태관광이 인기다.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설렘과 행복을 안겨주는 녹색여행을 소개하는 책들을 모았다.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걷기여행

서명숙 지음 / 북하우스 펴냄 ·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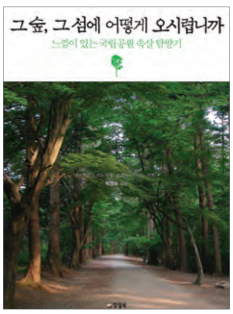


요즘 제주를 찾는 사람들의 패턴은 확실히 변했다. 푸른 바다와 이야기하며 걷거나 낮은 돌담 사이로 부는 제주의 바람을 느끼며 걷는 생태관광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다. 이 책은 '스페인에 산티아고 가는 길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제주 올레가 있다'는 일념으로 제주 올레길을 만들어낸 서명숙 씨의 이야기다.

제주 출신인 저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 쉼표가 필요할 때 제주 올레길을 걸어보라고 권한다. 문화유산 답사여행에서 걷기여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새로운 여행 패턴이 탄생된 사연도 이 안에 담겨 있다.

그 숲, 그 섬에 어떻게 오시렵니까?

박경화 지음 / 양철북 펴냄 · 1만5천원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저자가 자신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감수성 짙은 경험담을 적었다. 국립공원을 소개하면서 자연자원과 소중한 문화유적이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저자가 추천하는 '생각하고 느끼는 것, 천천히 기다리는 여행법'대로 산양과 반달가슴곰 같은 야생동물이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나무들, 산성과 사찰 같은 문화유적을 만나면 생태관광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

우리나라 해안여행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어촌어항협회 지음 / 넥서스 펴냄 · 2만5천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해안선에 U자형인 자전거길이 생겼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명사인 '자전거 타기'를 테마로 어촌마을 탐방을 장려하기 위해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길 1만 리를 발굴한 것.

이 책은 자전거 하나로 우리나라 서쪽의 강화도에서 시작해 해남 땅끝마을과 부산을 지나 동해의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여행할 수 있는 길을 소개한다. 어촌체험마을 방문에 필요한 어항, 특산물, 맛집, 숙박업소, 주변 여행지 등의 정보까지 담고 있는 친절함이 돋보인다.

대한민국 걷기 좋은 길 111

한국여행작가협회 지음 / 열번째행성 펴냄 · 1만3천8백원



걷기여행이 하나의 여행 트렌드로 발전되면서 제주 올레길을 비롯해 다양한 이름과 테마를 가진 길들이 전국에 생겨났다. 국내 유일의 전문 여행작가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는 우리나라 걷기 좋은 길 1백11곳을 선정했다. 짧게는 2킬로미터 안팎에서 길게는 30킬로미터가 넘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체험길을 교통편과 음식점, 숙박지와 함께 소개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가 담긴 도보여행자 여권을 수록해 여행을 하며 겪는 체험과 이야기를 여기에 적으면 여행 추억도 간직할 수 있다.

지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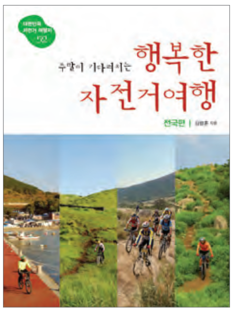
김영주 지음 / 컬처그라퍼 펴냄 · 1만3천원



이 책의 저자는 50세에 우리 땅 지리산을 경험했다. 사실 저자는 우리나라를 '다 알고 있는 땅, 새로울 게 없는 땅, 그래서 굳이 시간 내어 여행하고 싶지 않은 땅'으로 쉽게 정의 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외국인들이 지리산을 종주하면서 한국을 발견한다'는 뉴스를 보고 그는 첫사랑을 하듯 지리산에 빠지게 됐다. 지리산에서 '느리게 사는 삶' '만족하는 삶'을 얻은 저자와 녹색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주말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자전거 여행

김병훈 지음 / 터치아트 펴냄 · 1만7천원



책 소개에 앞서 저자 소개부터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전거 전문잡지 기자에 이어 지금은 월간 〈자전거 생활〉 발행인을 맡고 있다. 잡지 발행 틈틈이 국토 구석구석을 자전거로 누비며 살고 있다.

이 책은 들길, 호반길, 강변길, 바닷길, 섬길, 숲길, 초원길 등 생태관광이 가능한 42개 자전거 코스를 소개하면서 찾아가는 길, 주차, 숙박, 식사, 휴식, 주의사항 등까지 상세히 알려준다. 자전거 여행 초보자들도 이 책 하나만 믿고 길을 나설 수 있음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우리나라 그림 같은 여행지

박강섭 지음 / 안그라픽스 펴냄 · 1만3천8백원



흔히 우리는 멋진 풍경을 접하면 '그림 같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 이미지를 제목에 효율적으로 반영했을 뿐 아니라 실제 책 내용도 그림 같은 여행지들만을 골라 담았다. 글을 읽기 전에 사진만 슬쩍 봐도 가슴이 뛰고 현장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런 장점 때문인지 이 책은 '2010 한국관광의 별' 도서출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생태관광지 32곳을 계절별로 소개한다.

걷고 또 걷고 싶은 대한민국 산책길

장태동 지음 / 살림출판사 펴냄 · 1만2천원



걷기여행이 대세를 이루는 요즘, 어딜 가더라도 산책여행은 빠지지 않는다. 산책길 소개에 이어지는 '비자림 숲길은 인공적으로 가꾸지 않아서 신비스럽다. 거기에 안개가 끼는 날이면 그 신비함이 더해진다'와 같은 팁은 여행객에게 많은 영감을 선사해준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길, 꿈 따라 걷는 여름 숲길, 낙엽길 따라 내 마음 따라 나서는 가을길, 하얗게 눈 덮인 환상적인 겨울길 등 계절별 환경에 맞춘 생태 산책로 소개에도 주목하자.

교과서 속 베스트 여행지

백남천 지음 / 나무생각 펴냄 · 1만5천8백원



저자가 중학교 국어 교사였을 때 '여행은 참 아름다운 교과서'라는 말을 곧잘 했다.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여행지를 추천했다. 시간대별 이동코스 소개부터 여행지와 관련된 사건부터 유적, 미술관, 박물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소개하는 여행지 말미에 그 여행 장소가 몇 학년 교과서 몇 쪽에 나와 있다고 밝혀주는 메모는 이 책만의 특징이다.

사찰여행 42

유철상 지음 / 상상출판사 펴냄 · 1만5천5백원



누군가는 '인생의 쉼표가 필요하다면 절로 가라'고 했다. 이 책은 나를 찾아 떠나는 사찰여행을 하다 보면 사색여행도 함께 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행은 어딘가를 둘러보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느리게 걸으면서 나를 돌아본다는 것, 그런 사색을 위한 공간으로 사찰만큼 더 좋은 공간이 없다는 게 저자의 지론이다. 부록으로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사찰문화에 대한 정보,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목록을 싣고 있다. G

글 · 유연태(여행작가)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남 영암의 국제자동차경주장(조감도)에서 열린다.

세계인의 눈 사로잡을 '꿈의 레이싱'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서 개최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F1대회가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전 세계 1백88개국 6억명이 시청하는 F1대회 개최는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이고 우리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이벤트인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7월 16일로 1백 일을 남겨두고 있다. 국내 모터스포츠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전남 영암의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향후 7년간 매년 F1 그랑프리를 개최하게 되며 이후에는 연장 개최가 가능하다.

F1(포뮬러 원·Formula One)은 운전석 하나에 바퀴가 겉으로 드러난 오픈 휠 형식의 포뮬러 자동차 경주 중 가장 급이 높은 대회다. 1950년부터 시작돼 자동차 경주대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길다. 또한 연 4백만명의 관중과 6억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어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린다.

F1대회는 매년 전 세계 17~19개 나라에서 순회 개최되며, 각각의 경주대회를 그랑프리라고 한다. 그랑프리마다 순위대로 승점을 부여하고 순회 경주가 모두 끝나면 승점을 합산해 드라이버(개인) 부문과 컨스트럭터(팀) 부문에서 월드 챔피언을 결정한다.

올해 F1대회는 12개 팀 24명의 선수가 19개국을 순회하며 경주를 펼치고 있다. 코리아 그랑프리는 올해 17번째 라운드로, 전문가들은 2010 시즌 챔피언이 영암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첫 개장 경주장에서 펼쳐지는 경주여서 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F1의 살아 있는 전설' 미하엘 슈마허 선수 참가



이번 대회에는 'F1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미하엘 슈마허(41·사진) 선수도 참가한다. 총 91차례 레이스에서 우승했으며 7번이나 월드 챔피언에 올랐던 슈마허 선수는 2006년 은퇴했다가 올해 복귀했다. 아쉽게도 F1에 아직 한국 선수



F1대회는 첨단 기술과 거대자본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이벤트다. F1대회 조직위원회

는 없다. F1 선수는 전 세계에 오직 24명뿐일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 F1대회 국내 유치 조인식 이후 4년 동안 경주장 건설, 지원법 제정 등 기반조성과 더불어 교통·숙박, 관광상품 개발, 문화행사 등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는 동계올림픽, 월드컵, F1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해다. F1대회 조직위원회는 김연아 선수의 여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획득,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 등 스포츠 선진국의 위상을 F1으로 이어가기 위해 D-1백 일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7월 16일에는 'F1 시민운동 실천 캠페인'을 통해 F1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1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7월 17일에는 옛 전남도청 앞에서 30여 대의 슈퍼카가 전시되고 드리프트(급코너 돌기) 및 번아웃(타이어에 연기 내며 달리기)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또 광주~나주~목포를 경유해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경주장으로 몰아가는 카 퍼레이드를 펼친다.

7월 18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전남 무안군 남악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앞 8백 미터 도로에서 2백50여 대의 자동차와 2천5백여 명이 참여하는 '코리아 드래그 레이스 챔피언십'이 열린다. 4백 미터 직선코스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선발하는 경주로, 4백 미터를 10초대에 돌파하는 짜릿한 속도와 1천분의 1초 차이로 승부가 가려지는 불꽃 튀는 경쟁이 볼 만하다.

아울러 탤런트 이세창 씨를 F1대회 조직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참관인들을 대상으로 팬 사인회도 가질 예정이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행사로, 대한민국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F1대회는 단순한 자동차 경주대회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기술을 발달시키고 레저·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무형의 경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탤런트 이세창 씨 홍보대사 위촉·팬 사인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우리나라가 향후 7년간 F1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생산 유발 1조8천억원, 소득 유발 4천3백억원, 부가가치 유발 8천6백억원, 고용 유발 1만8천명으로 추정했다.

F1대회 조직위원회 박종문 사무총장은 "외국인 3만명 등 총 20여 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올해 F1대회를 보기 위해 영암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전남의 관광수지 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F1대회로 연간 10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원래 6~8월이었던 관광 성수기가 F1대회가 열리는 4월로 바뀌었을 정도이며, 모나코 역시 F1대회가 열리는 단 사흘 동안 1년 국내총생산(GDP)의 20퍼센트를 획득하고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koreangp.kr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레저로의 확산 차원에서 학교 교육과정 등으로 이어지는 e스포츠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업성취를 도모하는 교수학습체제인 G-러닝(Game based Learning)을 하고 있다. 동아DB

"국민 레저 e스포츠, 디지털 한류로 키울 것"

국민 레저 확산·KeG 국가브랜드화 등 5대 중점 발전전략 추진

온라인게임으로 대변되는 e스포츠는 젊은층에서 확실한 단일 레저문화로 자리매김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국민 전체가 인식하는 스포츠로서의 입지는 약하다. 기성세대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도약을 위한 '처방전'이 절실한 때다.

'개방·참여 스포츠로의 패러다임 전환.'

7월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e-Sports Innovation 2.0 : e스포츠 중·장기 발전계획(2010~2014년)'엔 국내 e스포츠의 현실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간 e스포츠는 젊은 층의 열렬한 지지 속에 명실공히 디지털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세계 최초로 e스포츠 프로구단이 생겨났고, 각종 케이블 방송을 통해 e스포츠의 '세계'가 안방으로 24시간 생중계되면서 사회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기에 몰두된 나머지 외국산 게임 종목 외에 다른 종목 다양화를 통해 e스포츠의 문화적 저변을 확산시키는 데는 소홀했다. 여기에 최근 승부조작 사건 등 여러 갈등을 자초해 스스로 자생력을 떨어뜨렸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스포츠로

또한 국제적으로 e스포츠 선도국으로 국제연맹(IeSF)까지 구성했음에도 실질적인 조정 및 기획 주체로서 확고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게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환경 조성도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낮아진 e스포츠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5대 중

점 발전전략이 추진된다. ▲국민 레저로의 확산 ▲게임산업 간 연계 확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 ▲지속성장 환경 조성 ▲혁신모델 KeG(Korea e-Sports Games)의 국가브랜드화가 그것이다.

먼저 프로 중심으로 편중된 e스포츠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현재 23개 종목에서 2014년까지 40개로 늘리는데, 특히 국민과 밀접한 종목 개발이 1차 목표다.

이를 위해 전국에 분포한 PC방의 환경 개선과 e스포츠 PC방 인증을 추진해 지역 e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장려한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와 복지센터 등 자치구 공공시설의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주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성 e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당장 올해부터 학교 교육과정과 이어지거나 노인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e스포츠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 우선 지향' 체제를 벗어나 업계와의 연계도 긴밀해진다. 특히 게임 저작권자인 게임업계와의 '밀착 교류'가 활발히 주선될 전망이다.

먼저 게임업계가 다양한 e스포츠용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 종목 다양화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e스포츠 종목화 표준 가이드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동작인식 등 e스포츠에 활용되는 범용기술 개발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국산 e스포츠용 게임 콘텐츠의 글로벌 종목화를 위해 국제게임대회(GNGWC)에서 국산 콘텐츠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홍수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폰용 e스포츠 종목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제 리더십도 강화한다. 사실상 세계 e스포츠 허브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우선 IeSF 사무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회원국을 현 15개국에서 2013년까지 45개국 내외로까지 늘릴 방침이다. 동시에 국제스포츠기구에 정식으로 등록한 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협회(FIFA) 등과 건실한 양해각서(MOU)를 추진해 위상과 영향력을 더욱 극대화한다.

이어서는 오프라인 스포츠의 발전 순서를 뒤따라간다. 종목마다 심판 운영, 선수 선발, 대회 규정 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공인 세계대회를 개최해 'e스포츠 올림픽' 탄생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산이다.


연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월 8일 서울 용산구 e스포츠 경기장에서 던전앤파이터 시범경기를 하고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스포츠게임이 인기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축구, 야구, 농구 등 대표 스포츠게임의 글로벌 e스포츠 챔피언십을 개최해 세계 e스포츠 팬들의 시선을 끌어들인다.

게임업계 교류 확대, IOC·FIFA와 MOU 체결

내실도 결속력 있게 다진다. 최근 승부 조작, 지적 재산권 파문 등으로 발목이 잡힌 경험이 있는 만큼 지속성장을 위한 분쟁조정협의체 운영 등의 법제도 기반 조성을 우선 추진한다. '저작권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2011년에 종목사, 게임단, 방송사, 학계 등에 보급한다. 이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게임 기술만 뛰어나면 만사형통'이라는 프로선수들의 안일한 의식에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자격증 제도도 시행한다. 그 중간 단계로 일단 1차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안에 e스포츠를 포함시키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기존 각 종목 스포츠 단체가 '대통령배'라는 명칭의 대회를 열어 내실을 다져온 전례를 모범 삼아 KeG 역시 실질적으로 국가브랜드화한다. e스포츠를 전국적 규모의 거대 스포츠 행사로 탈바꿈시킨다는 것.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부 내 경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지역 학교별로 예선, 본선을 실시해 전국적인 붐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e스포츠를 여가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연스럽게 자생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e스포츠 중·장기 발전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e스포츠 분야와 게임업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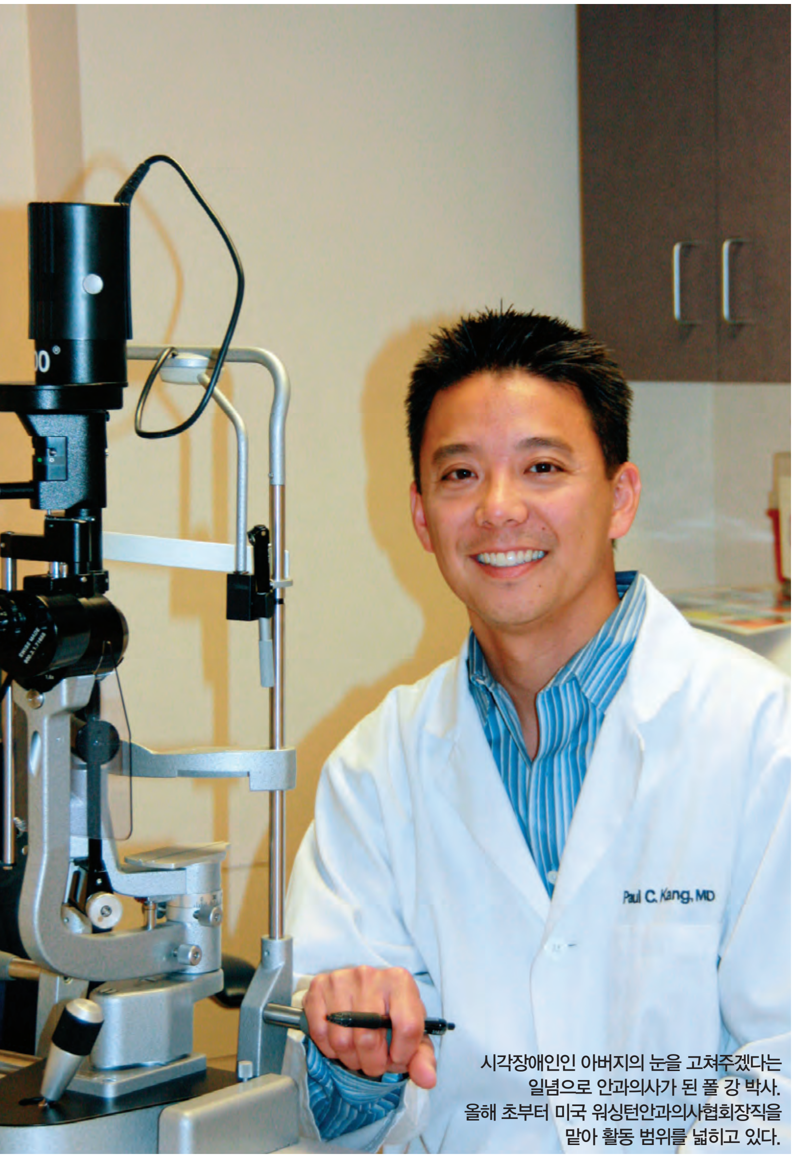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최진 사무관은 "e스포츠가 디지털 시대의 세대 간, 사회 간을 통합하는 국민 레저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대표적인 디지털 한류 국가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유재영 기자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나를 눈뜨게 했다"

美 워싱턴 지역 의료인 선정 '2010 가장 뛰어난 안과의사' 폴 강 박사

시각장애인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 안과의사가 되겠노라 약속했던 네 살 소년이 약속을 지켰다. 미국 월간지 〈워싱토니언〉이 지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올해 가장 뛰어난 안과의사로 꼽힌 한국계 미국인 폴 강 박사, 그는 30대 나이에 이례적으로 올해 초 워싱턴안과의사협회 회장으로도 선출됐다.



동아DB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는 일념으로 안과의사가 된 폴 강 박사. 올해 초부터 미국 워싱턴안과의사협회장직을 맡아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아이닥터스(Eye Doctors)' 병원은 워싱턴의 정·관계 고위급 인사가 많이 찾는 것으로 유명하다. 월간지 〈워싱토니언〉이 지역 의료인 6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2010년 가장 뛰어난 의사(안과 분야)'로 꼽힌 한국계 미국인 폴 강(한국명 강진석·36) 박사가 바로 이 병원에 있다. 그는 지난 1월 워싱턴안과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30대 나이로는 이례적이다.

강 박사는 네 살 때 자신과 놀아주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위해 "안과의사가 되어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다짐했다.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66) 박사가 바로 그의 부친이다.

하버드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폴 강 박사는 인디애나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안과의사가 됐다. 최근 아이닥터스 병원에서 강 박사를 만났다.

강 박사의 진료실은 그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주(州)에서 몇 시간씩 자동차를 타고 온 환자들로 북적였다. 그의 진료실에 놓인 것은 의료기기 외에 환자들에게서 받은 카드와 인형, 전공서적 몇 권과 낡은 가방이 전부였다.

"행복한 일은 좋은 영향력을 발휘"

강 박사는 "제가 베스트닥터로 꼽힌 이유는 하버드대 졸업장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일(환자를 돌보는 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의 진료실 일정표는 한 달 치 일정이 시간 단위로 짜여 있었다. 그는 인터뷰 틈틈이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보기 위해 진료실에 다녀왔다. 표정은 시종일관 밝았다.

강 박사는 'Why(왜)' 'What(무엇)' 'Happiness(행복)'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어린 아들 폴 강에게 점자책을 읽어주던 젊은 날의 강영우 박사(왼쪽).


강영우 박사와 아들인 폴, 크리스토퍼(오른쪽부터) 형제.

"하버드대를 졸업하면 모든 기회가 문을 열고 어서 오라고 환영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처럼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반복해 물어야 한다고 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래서 행복한가?" 그는 말했다.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일은 행복한 일이어야 한다고. 행복해야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원치 않는 것 강요한 적 없는 부모님의 교육 결과

젊은 나이에 워싱턴안과의사협회장이 된 것도 마찬가지다. 강 박사는 자신이 하버드대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환자를 잘 돌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환자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선출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자신만 행복하다면 안과의사든 변호사든 헤어디자이너든 웨이터든 자신의 직업은 상관없다고 했다. 강 박사는 "이런 내 가치관은 나의 두 딸과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서 원치 않는 악기 연습을, 운동을, 클럽활동을, 공부할 것을 강요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부모님이 교육한 결과가 저와 제 동생입니다."

강 박사의 동생 크리스토퍼 강(한국명 강진영·33)은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정치학을 복수전공하고 듀크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난해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특별보좌관(차관보급)에 임명돼 형보다 먼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 박사는 하버드대 입학 당시 추천서와 면접에서도 남다른 평가를 받았다. 진학 담당 교사는 추천서에 "그의 높은 행복지수와 낙천적인 성격, 긍정적인 태도가 하버드대 캠퍼스에 신선한 공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폴 강 박사의 하버드대 제출 에세이

잠시 후 부드럽고도 체면사의 기법을 닮은 듯한 아버지의 책 읽는 음성이 나를 사로잡았다. 또박또박 부드럽게 읽어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유치원이란 좁은 세계에서 사는 나를 머나먼 상상의 세계로 데리고 가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점자책을 자세히 보았다. 나의 선명한 상상의 뿌리인 그 책은 볼록볼록 튀어나온 점들이 페이지를 채웠을 뿐 그림 한 장도 없었다.

점자 페이지 위에 손을 얹어놓고 이리저리 더듬어보며 아버지는 어떻게 그것을 읽으실까 생각해보았지만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직껏 나는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버지의 실명으로 내가 잃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리라.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육안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두 눈을 뜬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인 아버지가 정상의 눈을 가진 내 인생을 안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읽어주신 이야기' 중 일부

그가 하버드대 입학을 위해 쓴 에세이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읽어주신 이야기'는 입학사정관들을 감동시키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면접에서 그는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사는 것이 비장애인 아버지와 사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눈이 보이는 아버지와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 차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자연스러울 뿐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에게서 모든 일에 도전하는 품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G

글 · 봉아름(동아이지에듀 기자)



올해 전반기 프로야구계는 '스트라이크존 전쟁'으로 뒤숭숭했다. 성급한 '존 확대' 룰 개정에 감독, 선수, 심판들까지도 혼란을 겪었다. 동아DB

스트라이크존 확대, 무엇을 가져왔나

올해 전반기 프로야구계는 '스트라이크존 전쟁'으로 내내 뒤숭숭했다. 감독과 선수들이 볼 판정을 놓고 심판들과 잦은 충돌을 일으킨 것. 이 정도의 갈등은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 논란의 핵심은 확대된 스트라이크존이다. 심판부의 주도로 스트라이크존이 확대되자 감독과 선수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야구 규칙상 스트라이크존은 좌우는 홈플레이트, 상하는 타자의 가슴에서 무릎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올 들어 우리 프로야구에선 몸쪽과 바깥쪽으로 볼 반 개씩(3.6센티미터) 스트라이크존을 넓혔다. 스트라이크존을 확대한 것은 경기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유영구 KBO 총재가 지난 1월 세미나를 통해 '스피드 업'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고, 이후 12초 룰(투수가 준비 동작에 들어간 후 12초 안에 투구), 5회 말 클리닝타임 폐지 등과 함께 스트라이크존 확대 룰이 생겨났다. 빠르고 박진감 있는 경기를 팬들에게 선사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스트라이크존 확대에 대한 현장의 우려는 컸다. 스트라이크존은 '헌법'과도 같은데 즉흥적으로 뜯어고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적응 기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도입할 경우 일선 감독과 선수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도 많았다.

처음부터 구단과 선수 지지 못 받아

실제 현장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김성근 SK 감독은 "존 확대는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는 현장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고, 제리 로이스터 롯데 감독도 "차라리 홈플레이트를 키워라"고 비아냥거렸다.

스트라이크존 확대를 제안한 조종규 심판위원장은 지난 2

월 일본의 스프링캠프를 돌며 감독들에게 배경을 설명했다. 캠프 경기에 심판들을 파견해 새로운 스트라이크존 시범을 보이기도 했고, 3월 시범경기에선 본격적으로 새 룰을 적용했다. 그러면서 각 구단은 새로운 스트라이크존에 어느 정도 적응하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막상 시즌에 돌입하자 혼돈의 상황이 조성됐다. 일부 선수들은 바뀐 스트라이크존 규정에 적응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규정을 바꾼 심판들의 기준 없는 판정도 불만을 더욱 키웠다.

볼 반 개가 아니라 한 개 이상이 빠진 투구에 대해서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는 경우가 나오면서 선수들의 항의는 경기마다 끊이질 않았다. 7월 초 현재 7명의 감독과 선수들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했다.

일관성 결여한 심판들에 비난 쏟아져

사실 볼 판정은 심판마다 개인 차이가 있다. 사람의 육안으로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요는 심판 개개인이 얼마나 판정에 일관성을 갖고 있느냐다. 비슷한 볼에 대해 양 팀에 모두 비슷한 판정을 내린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스트라이크존 확대로 심판의 재량이 더욱 커지게 됐고, 이에 따라 판정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다 보니 불리하면 일단 물고 늘어지는 아전인수식 해석과 맞물려 충돌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일관성의 결여는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판관'의 판결에 의심부터 보낸다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별 논란이 없었던 볼 판정에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심판들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

스트라이크존의 혼돈은 심판부의 재편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올해부터 심판부는 새로운 실험을 했다. 1군을 4개조에서 5개조로 늘리고, 한 조가 돌아가면서 2주일간 2군에서 근무하는 방식을 취한 것. 5개조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2군 심판 5명도 1군조에 포함됐다. 2군 심판들의 기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아무래도 실전 경험이 적은 심판들이 1군 경기에서 주심 마스크를 쓰다 보니 실수가 자주 나왔다. 1군 투수들의 볼 스피드나 변화구 각도, 제구력 등에 완전하게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뀐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애매모호한 볼 판정이 늘어난 것. 더욱이 '12초 룰'까지 생기면서 심판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신경 써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심판들은 적응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도 감독과 선수들이 기다려주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심판은 "심판들도 사람이고 육안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익숙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 베테랑들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경험이 적은 심판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판들은 시즌 초반에는 비교적 스트라이크존을 넓게 설정하면서 자신의 존을 가다듬어간다. 어찌 보면 이러한 적응기에서 현장과 거센 충돌이 벌어진 셈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스트라이크 판정 문제가 심각해지자 심판들이 슬그머니 예전의 스트라이크존으로 판정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점. 실제로 최근 감독이나 선수들 중에는 "존이 다시 좁아진 것 같다"며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볼 판정에 대한 어필이 줄어드는 걸 보면 감이 잡힌다. 심판들도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달가워할 리 없으니 결국엔 보수적인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고친 헌법이 다시 무용지물이 될 판국이다.

KBO 관계자는 현장의 책임도 지적한다. 새 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감독들은 지난 1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코치와 구단 관계자들이 나왔지만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래서 2월 심판위원장이 캠프를 돌며 자세히 설명했다. 그때 항의하고 시행을 늦추자고 의견을 낼 수도 있었다"며 불만스러워했다. 이 때문에 논란의 책임을 모두 심판에게 돌릴 수 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이번 스트라이크존 파동은 심판의 권위 추락과 함께 주먹구구식 정책에 또 한 번 경종을 울렸다. 치밀한 준비 없는 정책 시행으로 난맥상을 보여주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G

글 · 이선호 OSEN 야구부장

동아DB



동아DB

스트라이크존이 넓어진 이후 일관성 없는 볼 판정이 늘었다. 주심들은 어느새 감독과 선수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변했다. 한화 한대화 감독(왼쪽)과 LG 이병규가 경기 중 주심의 스트라이크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살빼기 전쟁'은 휴대전화와 함께

'칼로리코디' 7월 둘째주부터 무료 다운로드



동아DB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개발한 '개인별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휴대전화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사는 김명숙(41) 씨는 딸 서연(7)이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아이스크림, 캔디 등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와 전쟁을 치른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 뚱뚱해진다"고 '협박'을 해봐도 아이를 당장 설득할 '그 무엇'이 없으니 거리에서 아이와 전쟁을 벌이기 일쑤다.

마포구 서교동의 송준희(30) 씨는 결혼 후 부쩍 불어난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운동 후 몰려오는 공복감을 물리치는 일이 너무 힘들다. 샌드위치 하나를 먹으려 해도 조금 전에 운동한 것이 모두 허사가 될까 걱정이다.

김 씨나 송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주부를 비롯해 다이어트 중인 많은 국민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인별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인 '칼로리코디'를 개발해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설치해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얼마나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소모했는지를 즉석에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서비스를 7월 둘째주부터 개시했다.

이 영양관리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비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무료 배급을 통해 1년에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소모되는 1조7천9백23억원(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계 자료)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서비스는 ▲개인별 비만도 평가와 필요열량 산출 ▲식품별 영양성분 함량정보 ▲일일·주간 열량 평가 ▲신체활동에 따른 칼로리 소비량 ▲건강정보 등이다. 휴대전화를 열고 오늘 섭취한 식품정보와 운동 등 활동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면 언제라도 자신의 영양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정확한 칼로리·필요 운동량 즉석에서 알 수 있어"

각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시작한 칼로리코디 프로그램은 기기별 특성에 맞도록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권광일 연구관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확한 칼로리와 운동량을 즉석에서 알 수 있고, 과식을 했을 때 운동 처방까지 받을 수 있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Tel 02-380-1311~14


4대강살리기는 생명살리기
생명의 강, 기쁨의 강
제 54 화 〈마지막 회〉
글 · 이연수 그림 · 이호
당신에게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우리는 길을 찾고
그 길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우리는 수월히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이 당신을 병들게 하고
급기야 우리 자신마저 병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되살릴 차례입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메마르고 더럽혀진 당신에게 새 생명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강,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자 지혜이며 기쁨입니다.



도서평론가 이권우가 추천하는 〈논어, 사람의 길을 묻다〉

뒤돌아 보면 미래가 보인다

고전(古典)은 양서의 기본이다. 하지만 막상 고전을 접하려고 하면 마음처럼 쉽지 않다. 왠지 읽기 어렵고 고리타분할 것 같다는 편견이 앞선다.

그러나 2천5백 년 전 공자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사자성어로 고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는 의미로, 모든 사고의 경지를 아우르는 고전을 접하면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도서평론가 이권우(48) 씨도 공자님 말씀에 동의했다. 그는 "보통 책들이 라면이자 쌀밥이라면 고전은 잡곡밥"이라며 "고전만 읽어도 '호모부커스(책 읽는 인간)'는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전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좋은 만남이 될 고전 해설서를 추천했다.

도서평론가 이권우 씨는 "고전은 미래를 보는 힘"이라며 쉽게 풀어쓴 〈논어〉 해설서인 이 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재미를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공자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고전 〈논어(論語)〉를 쉽고 재미있게 해설한 〈논어, 사람의 길을 묻다〉다. 20여 년간 출판 현장과 대학을 누비며 독서의 중요성을 알려온 그의 안목대로, 책을 펼치는 순간 고전에 대한 선입견이 눈 녹듯 사라진다.

"〈논어〉는 공자 사후에 그 제자들이 스승과 나눴던 대화들을 모아 쓴 책입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읽으려고 하면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책은 〈논어〉를 이루는 20편에서 각각 주제를 뽑아 에세이 형식으로 써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쉽게 와닿게 만들죠."

'안연'편에 나오는 '극기복례'는 공자 가르침의 핵심

이 씨는 〈논어〉 20편 가운데 특히 새겨 읽을 부분으로 '학이(學而)'편과 '안연(顔淵)'편을 꼽았다. 학이편의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하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랴'라는 가르침에 대해 이 씨는 "단순히 공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얼마나 스며들고 있는지 되새겨야 한다"며 "그렇게 어떤 한 분야에 오랜 시간 정진했을 때 전문가, 즉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때는 다들 인정하는 최고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 씨는 안연편에 나오는 "극기복례(克己復禮)야말로 공자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짚어냈다.

"공자에게 인이란 진리이자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려면 극기복례를 통해 자신이란 실체를 넘어선 진정한 관계성을 회복해야 하죠. 남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의 관계를 재인식하면 '남이 있으므로 비로소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씨는 인간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벼락같은 축복'이라고 표현했다.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채워주는 책이야말로 '삶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고전은 미래를 보는 힘이다. 올해의 반이 지난 지금, 공자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삶의 목표를 재점검해보는 건 어떨까. G

글 · 김민지 기자

〈논어, 사람의 길을 묻다〉 배병삼 지음 / 사계절 펴냄 · 1만8백원

마음속 욕심 항아리를 비워라

글과 그림 · 최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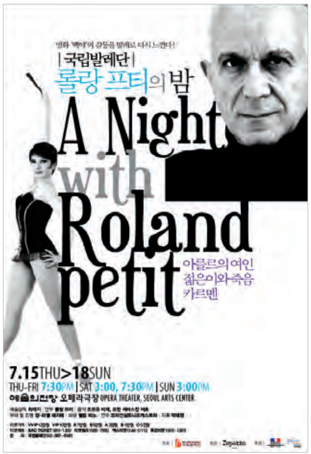


마음이 물건을 좇으면 삿된 것이요,
물건이 마음을 좇으면 바른 것이다.
– 대주 선사(중국 선승)

춤으로 되살아나는 가슴 저린 사랑

발레 〈롤랑 프티의 밤〉

일시 7월 15~18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VIP석 12만원,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C석 5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7-6181 www.sac.or.kr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안무가 롤랑 프티(86). 국립발레단은 그의 세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발레 공연 〈롤랑 프티의 밤〉을 7월 15일부터 나흘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펼친다.

이번에 선보이는 세 작품은 국립 파리오페라발레단과 밀라노 라스칼라발레단의 레퍼토리로 공연되고 있는 〈아를의 여인〉과 〈젊은이의 죽음〉 그리고 〈카르멘〉이다. 알퐁스 도데의 동명소설을 발레로 만든 〈아를의 여인〉은 프랑스의 남부 도시 아를(Arles)을 배경으로 한 가슴 저린 사랑 이야기다. 이뤄지지 않는 사랑에 괴로워하는 두 남녀의 애틋하면서도 비장한 춤사위가 비제의 슬픈 음악과 어우러져 관객의 심금을 울린다.

〈젊은이의 죽음〉은 1986년 개봉한 영화 〈백야〉의 도입부에서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7분간 강렬하게 선보인 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춤이다. 의자와 책상을 활용한 대담한 안무가 인상적인 이 춤은 프티가 1946년에 만든 작품으로, 죽음을 부르는 팜므파탈의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을 매는 한 젊은이의 처절한 몸부림을 담아냈다.

프티의 대표작인 〈카르멘〉은 파격적인 의상과 안무, 도발적인 헤어스타일 등으로 1949년 영국 런던 초연 당시부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육감적인 춤과 여러 에피소드를 엮어 하나의 줄거리 있는 발레로 만든 이 작품은 프티가 남긴 최고의 수작으로 꼽힌다. 발레리나에게 꿈의 배역인 카르멘 역에는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인 김지영과 윤혜진이 낙점됐다.

국립발레단 최태지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을 위해 롤랑 프티와 작업한 오리지널 스태프들이 대거 내한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7월 16일 공연 티켓은 한국 축구의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16강 진출을 축하하는 뜻에서 반값에 제공된다.

글 · 김지영 기자



김용복의 춤 〈무(舞)〉

일시 7월 16일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S석 3만원, A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386-0547 www.ntok.go.kr

김용복 무용단이 오늘날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는 춤의 의미를 형상화한 창작무용 공연. 인간의 삶을 주제로 우리 전통 춤사위를 현대적으로 변화시킨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삶이 곧 춤'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1장에서는 인류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2장에서는 신과 인간의 교감을, 3장에선 우주 만물의 이치와 형상을, 4장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감정의 기복을 춤으로 그려낸다.



기획전 〈잊혀진 전쟁, 현실의 분단〉

일시 12월 26일까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 ·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4전시실 일부 코너
관람료 무료
문의 02-2188-6000 www.moca.go.kr

6·25전쟁과 분단에 대한 예술가들의 시각과 해석을 보여주는 특별전. 전시 공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 원로 만화가 김성환이 6·25전쟁 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을 담은 〈1950년 6월 27일 돈암교 근처〉 등 4점의 스케치를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코너에는 이철이, 박성환, 임옥상, 김재홍 등 작가들의 전쟁과 분단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www.mgreen.org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

메이드 그린 人 Fair

우수축산물 페스티벌과 수산물 브랜드대전이 함께 펼쳐집니다.

개최기간_ 2010. 7. 29(목) ~ 8. 1(일), 4일간

개최장소_ 서울 COEX 3층 C, D, E홀

주최_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_ 한국농어촌공사 / 농협중앙회 / KFPA 한국어촌어항협회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romotion Association

후원_ 지식경제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 경제를 살렸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곧 되살아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 땅, 우리 강을 보살피겠습니다.